

2025 서대문구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서대문구 노인 맞춤형 사회참여·여가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모델 연구

연구 기관: 가치경영원

책임연구원: 이정환 교수(명지대)

2025.11.



서대문구의회

제 출 문

서대문구의회 의장 귀하

이 보고서를 「서대문구 노인 맞춤형 사회참여·여가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모델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 11.

- 연구기관 : 가치경영원
- 책임연구원 : 이정환 (명지대학교, 교수)
- 연 구 원 : 강상원 (가치경영원, 연구원)
김선호 (가치경영원, 연구보조원)

(요약문)

서대문구 노인 맞춤형 사회참여·여가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모델 연구

요 약

1. 서론

서대문구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59,685명(19.7%)이며, 1~2년 내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시적이다. 보고서는 단순 돌봄 중심에서 벗어나 적극적·자립적 참여로의 전환을 목표로, 현황 진단과 자원·욕구 분석, 국내외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실행가능한 해법을 도출한다. 연구 목적은 ① 서대문구 사회참여·여가 정책의 체계적 분석, ② 지역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 모델 개발, ③ 고령친화도시 전환을 위한 장기 정책 제언이다. 연구범위는 인구·정책 현황, 지역자원·욕구 조사, 우수 사례 분석, 최종 프로그램·정책 제안으로 구성되며 통계·문헌·현장조사·벤치마킹을 병행하였다.

2. 연구 기반 구축 및 현황 분석

전국·서울·서대문구의 인구구조는 동시적으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서대문구는 최근 3년간 65~74세가 두드러지게 증가(핵심 노인층 형성)하고 75세 이상도 꾸준히 확대되어 노인 내부의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제도만으로는 삶의 질 보장이 어렵다는 점과 중장기 관점의 정책 설계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서대문구에서 노인 사회참여(일자리)는 2024년 총 5,290명이 참여했고, 공익활동형 4,582명(87%)으로 집중되어 있다. 접근성은 높지만 단순·반복 업무 비중으로 전문성 발휘와 자립 가능성이 제한되며, 사회서비스형은 보수·연계성은 우수하나 정원 제약, 시장형은 자립 기회가 있으나

보조금 의존으로 지속성 한계가 지적된다. 서대문구의 노인 관련 시설은 노인 종합복지관 1개, 노인복지센터 3개, 노인교실 9개, 경로당 120개 등 생활권 거점이 촘촘히 분포해 건강·문화·정보화·취미·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복지관은 다양성과 전문성, 경로당은 접근성과 생활밀착성이 강점이나, 시설 노후·접근성 격차·성별 편중, 프로그램의 활동성·사회성 부족 등 개선 과제가 확인되었다.

3. 지역사회 자원 조사 및 노인 욕구 파악

서대문구는 공공·민간 자원이 풍부하며, 노인종합복지관·구립 복지관·노인교실·경로당 등 기존 인프라가 커뮤니티 허브로 확대될 잠재력이 크다. 여가·사회참여 욕구와 지역자원 간 매트릭스 분석을 통해, 자원은 있으나 접근성과 프로그램 다양성에서 병목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욕구 카테고리-자원 카테고리-연계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4. 고령친화도시 우수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

본 연구는 여가 지원과 사회참여 두 축에서 국내외 사례를 선별하여 진행하였다. 국내로는 부산시 ‘하하센터’를 제시하며, 지하철역·대학 등 접근성이 높은 입지에 라운지·미디어실 등을 갖춘 개방형 생활권 거점을 조성, 민관학 협력과 시-구 연계로 운영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해외 여가지원 사례로는 영국 댄헤드 파크의 고령친화 공간 운영을, 사회참여 사례로는 미국 AmeriCorps Seniors의 수당·보험 등 직접혜택과 표준화 지표(VSY), 다층 거버넌스 기반 대규모 자원봉사 플랫폼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근거리 접근성·거점화, 참여의 지속가능 재정·관리체계 측면에서 서대문구의 벤치마킹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었다.

5. 서대문구 적용가능한 프로그램 모델 및 정책 제언

서대문구의 고령화 현황을 토대로, ‘돌봄’ 중심을 넘어 적극적·자립적 참여로

전환하기 위한 적용 가능 모델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25년 65세 이상이 약 6.1만 명(19.4%)으로 서울 평균과 유사하지만, 현 구조만으로는 다변화된 욕구(능동적 사회참여, 문화예술, 디지털·평생학습, 건강증진, 정서지원)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다. 노인일자리는 참여가 늘었으나 공익활동형 편중으로 전문성·직무 다양성이 부족하고, 여가프로그램은 전통 취미 중심이라 관람·창작 등 새로운 문화욕구를 담기 어렵다. 디지털 역량 격차는 사회참여의 문턱이 되며, 신체 제약·취약집단을 겨냥한 생활권 건강·정서지원과 민·관 거버넌스, 정기 평가체계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맞춤형 운영 모델로 ① 활동적 신노년층을 위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유희공간 리모델링, 이용자 기획·참여, 세대 통합 개방) ② 노인 친화형 야외 여가시설의 운영 중심 재활성화(운동리더, 마을 건강동아리, 순환형 걷기코스) ③ 고령자 자원봉사 플랫폼(일자리-봉사 연계, 멘토링·돌봄·전문자문 표준화)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책 추진은 단기에 전담 TF와 민·관 협의체, 조례 정비, 욕구조사와 소규모 시범사업, 모니터링·홍보 체계를 마련하고, 중장기에 권역 거점 확충, 고령친화도시 조례 제정, 표준 매뉴얼, 민·관·학 거버넌스와 복합재원 구조(펀드 포함), 전문인력 양성, WHO 네트워크 가입과 도시 인프라 개선으로 확산한다. 궁극적으로 서대문구는 노인을 ‘보호 대상’이 아닌 지역의 주체·자산인 포용도시로 전환이 필요하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II. 연구기반 구축 및 현황 분석	5
1. 인구 현황 조사	5
가. 전국 인구특성 분석	5
나. 서울시 인구특성 분석	6
다. 서대문구 인구특성 분석	8
2. 서대문구 노인 사회참여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 현황	11
가. 서대문구 노인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운영 현황	11
나. 서대문구 노인 여가 프로그램 운영 현황	13
다. 서대문구 노인 관련 정책 분석	19
3.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 분석	25
가. 국내 노인 여가 및 사회참여 관련 연구 동향	25
나. 고령친화도시 정책 프레임워크와 국제 동향	29
다. 종합 시사점	30
III. 지역사회 자원 조사 및 노인 욕구 파악	31
1. 서대문구 활용 가능 지역자원 실태 조사	31
가. 서대문구 내 노인 관련 지역자원	31
나. 서대문구 내 그 외 지역자원	52
2. 노인 관련 욕구 파악 및 분석	57
가. 여가활동 영역	57
나. 사회참여 영역	59
3. 지역자원과 노인 욕구 간 연계 가능성 분석	63
가. 노인 욕구 카테고리	63
나. 서대문구 내 지역자원 카테고리	64

다. 노인 욕구 - 지역자원 매트릭스 분석	64
라. 종합 정책 이슈 및 개선 방향	65
IV. 고령친화도시 우수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	68
1. 노인 여가지원 사례	68
가. 국내 - 부산시 하하센터	68
나. 해외 - 영국 댄헤드파크	73
2. 노인 사회참여 사례	80
가. 국내 - 경남 시니어 스마트시설안전매니저	80
나. 해외 - 미국 Americorps Seniors	87
V. 세대문구 적용가능 모델 및 정책 제언	94
1. 분석결과 종합 및 시사점 도출	94
2. 세대문구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 모델 제안	98
가. 신노년층을 위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	98
나. 노인 친화형 야외 여가시설	99
다. 고령자 자원봉사 프로그램	101
3. 고령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103
가. 단기 발전 방향	103
나. 중장기 발전 방향	104
다. 결론	105
<참고문헌>	106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서대문구는 현재 급격한 인구 고령화라는 중대한 사회적 변화에 직면해 있음
 -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서대문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약 19.42%에 달하며, 이는 서울시 전체 평균인 19.53%와 유사한 수준임
 - 이러한 추세는 통계적으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음을 의미함
 - 특히, 서대문구의 노인 인구 비율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3.5%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정책만으로는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임

< 표 1-1 > 서대문구 노인인구 현황(최근 3년)

연도	전체 인구	65세 이상 노인 수	노인인구 비율	노인인구 비율 (서울시)
2023	320,629명	58,113명	18.12%	18.09%
2024	318,622명	60,229명	18.90%	19.01%
2025	316,827명	61,521명	19.42%	19.53%

* 출처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 통계

-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단순한 통계적 수치 증가를 넘어, 서대문구가 노인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음을 시사함
 - 기존의 '돌봄'과 '보호'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노인들이 은퇴 후에도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체적으로 삶의 의미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시급함
-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타 자치구들의 성공 사례와 시행착오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서대문구의 특성에 맞게 재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 수립 방안이 될 수 있음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서대문구의 노인 인구 비율은 13위로, 노인 인구 비율이 이미 25%를 넘은 강북구(1위)나 도봉구(2위) 등 일부 자치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이러한 통계는 서대문구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줌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아래, 서대문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핵심적인 연구 목적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서대문구 노인의 사회참여 및 여가 활동 지원 정책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진단함
 - 둘째, 지역사회에 산재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노인의 실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함
 - 셋째, 이를 바탕으로 서대문구가 고령친화도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 제언을 제시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책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
- 이 연구는 노인 개인의 자아실현 욕구와 지역사회의 잠재력을 결합하는 혁신적인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서대문구 노인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임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본 연구는 서대문구 전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사회 참여와 여가 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모델 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함
 - 내용적 범위는 서대문구 노인 인구 특성과 기존 노인 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분석, 지역사회 내 활용 가능한 자원 조사, 노인의 심층적 욕구 파악, 국내외 고령친화도시 우수사례 분석, 그리고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에 적용 가능한 맞춤형 프로그램 모델 개발 및 정책 제언을 포함함
 -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계 자료 분석, 문헌 연구, 현장 조사,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활용하였음
- 현황 조사로는 서대문구의 인구구조와 기존 노인복지 프로그램 현황에 대한 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정책적 대응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했으며, 문헌 연구를 통해 노인들의 보편적인 복지 및 사회참여 욕구와 고령화 정책의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였음
- 지역자원 뿐만 아니라 노인 욕구 조사의 문헌연구를 병행하여 정책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국내외 고령친화도시 성공 사례를 분석하여 서대문구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Ⅱ. 연구기반 구축 및 현황 분석

1. 인구 현황 조사

가. 전국 인구특성 분석

-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5년간 약 61만 9천 명 감소하였고,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며 인구 절벽 단계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음

〈 표 2-1 〉 대한민국 인구 현황

(단위 :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국	51,836,239	51,769,539	51,439,038	51,325,329	51,217,221

*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연령별 인구구조는 뚜렷한 양극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노인층(60세 이상)은 3년간 약 2%p 증가한 반면, 그 외 모든 연령대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음
 - 그 결과, 대한민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계속 줄어드는 동시에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며 부양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 표 2-2 〉 대한민국 연령별 인구분포

구분	2022	2023	2024
유아 (0-4세)	2.78%	2.60%	2.48%
어린이/청소년 (5-19세)	13.24%	12.96%	12.67%
청장년 (20-59세)	57.77%	57.26%	56.64%
노인 (60세 이상)	26.22%	27.18%	28.21%

* 출처 : 통계청, 연령별 인구현황

○ 대한민국의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15년 654만 명(13.1%)에서 2024년 994만 명(20.0%)으로 증가하여, 9년간 약 52% 확대됨

- 이러한 추세에 따라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층에 해당하게 되며,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복지·연금·의료 등 사회보장 재정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는 한편, 고령친화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예정임

< 표 2-3 > 대한민국 고령인구 현황

(단위 : 천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고령인구 (65세 이상)	6,541	6,757	7,066	7,366	7,688	8,151	8,569	8,981	9,435	9,938
고령인구 비율	13.1	13.5	14.2	14.8	15.5	16.4	17.1	18.0	19.0	20.0

* 출처 : 통계청, 고령인구비율

나. 서울시 인구특성 분석

○ 서울특별시 인구는 2020년 9,911천 명에서 2024년 9,597천 명으로 줄어들며, 최근 5년간 약 31만 명 감소함

- 이는 지속적인 인구 유출 및 자연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서울의 인구는 1천만 명 이하 수준에서 정체·감소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임

< 표 2-4 > 서울특별시 인구 현황

(단위 :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서울특별시	9,911,088	9,736,027	9,667,669	9,638,799	9,597,372

*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서울시의 연령별 인구구조를 보면, 노인층(60세 이상)은 최근 3년간 약 1.7%p 증가한 반면 유아·청소년 및 청장년층은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 역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축소되는 동시에 고령 인구가 확대되며, 저출산·고령화 구조가 심화되고 있음

〈 표 2-5 〉 서울특별시 연령별 인구분포

구분	2022	2023	2024
유아(0-9세)	2.41%	2.27%	2.17%
어린이/청소년 (10-19세)	11.31%	11.01%	10.73%
청장년 (20-59세)	61.07%	60.72%	60.23%
노인 (60세 이상)	25.20%	26.00%	26.86%

* 출처 : 통계청, 연령별 인구현황

- 서울시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15년 126만 명(12.6%)에서 2024년 181만명 (19.4%)으로 증가함
- 불과 9년 만에 약 43%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어, 서울도 전국과 함께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음
- 이는 도심권 의료·복지 서비스 수요의 확대와 함께, 고령 친화적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함

〈 표 2-6 〉 서울특별시 고령인구 현황

(단위 : 천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고령인구 (65세 이상)	1,262	1,296	1,360	1,410	1,479	1,561	1,597	1,658	1,733	1,814
고령인구 비율	12.6	13.0	13.8	14.4	15.2	16.1	16.8	17.6	18.5	19.4

* 출처 : 통계청, 고령인구비율

다. 서대문구 인구특성 분석

○ 2024년 기준 서대문구의 총 인구는 302,853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이하 고령 인구)는 59,685명으로 전체의 19.7%를 차지함

- 이는 서대문구가 이미 고령사회(14% 이상)를 넘어 초고령사회(20% 이상) 진입을 1~2년 내에 앞두고 있음을 의미함. 이처럼 급격한 고령화 속도는 단순한 인구 증가를 넘어, 기존 정책만으로는 노인들의 삶의 질 보장이 어렵다는 정책적 시급성을 제기하며 장기적인 관점의 지속가능한 정책 설계가 필수적임을 보여줌

< 표 2-7 > 서대문구 고령인구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고령인구 (65세 이상)	46,417	47,303	48,898	50,045	51,645	53,756	53,822	55,502	57,588	59,685
고령인구 비율	14.9	15.1	15.6	16.1	16.7	17.2	17.7	18.1	18.8	19.7

* 출처 : 통계청, 고령인구비율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서대문구의 고령 인구 비율은 12위로, 고령 인구 비율이 25%를 넘는 강북구(1위)와 도봉구(2위) 등 일부 자치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서대문구가 이미 고령화가 심화된 타 자치구(25% 이상인 강북구, 도봉구 등)의 선행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지역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개발 여지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

〈 표 2-8 〉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고령인구 현황(2024)

(단위 : 명)

순위	전체 인구	총 인구 수	고령인구 수	고령인구 비율
-	서울특별시	9,331,828	1,813,648	19.4
1	강북구	283,597	71,227	25.1
2	도봉구	303,228	74,149	24.5
3	중랑구	379,274	83,299	22.0
4	중구	120,544	26,408	21.9
5	종로구	138,336	29,574	21.4
6	은평구	460,919	97,788	21.2
7	구로구	388,169	82,027	21.1
8	금천구	225,159	47,037	20.9
9	동대문구	338,735	69,314	20.5
10	노원구	491,247	100,467	20.5
11	성북구	421,560	83,353	19.8
12	서대문구	302,853	59,685	19.7
13	동작구	375,799	72,783	19.4
14	강서구	556,171	107,246	19.3
15	용산구	203,854	38,894	19.1
16	강동구	476,942	89,687	18.8
17	성동구	273,669	51,030	18.6
18	양천구	430,976	80,174	18.6
19	관악구	477,812	88,138	18.4
20	영등포구	373,773	68,568	18.3
21	광진구	331,963	59,334	17.9
22	송파구	650,110	113,957	17.5
23	서초구	408,376	68,606	16.8
24	마포구	361,417	59,612	16.5
25	강남구	557,345	91,291	16.4

* 출처 : 통계청, 고령인구비율

- 서대문구의 노인 인구(60세 이상)는 3년간 4.5% 증가했으나, 연령대별로 상반된 변화를 보였음.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가 포함된 65-74세 구간의 증가폭이 8.3%로 가장 크게 노인 인구 성장을 견인한 반면, 60-64세 구간은 유일하게 2.8% 감소하여 노인 인구 유입 및 연령 구조 변화의 특이점을 보여줌
- 이러한 변화에 따라, 연령별 분포는 65-74세 비중이 2024년 기준 40.41%로 가장 크게 확대되며 핵심 노인층을 형성하고, 75세 이상 비중(32.48%)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노인층 내에서도 고령화가 심화되는 구조를 보임

< 표 2-9 > 서대문구 노인인구 현황

구분	2022	2023	2024	증감율
60-64세	23,053	22,837	22,393	-2.86%
65-74세	30,822	32,101	33,391	8.33%
75세 이상	25,174	26,012	26,838	6.61%
전체	79,049	80,950	82,622	4.52%

* 출처 : 서울특별시, 연령별 인구현황

< 표 2-10 > 서대문구 노인인구 분포

구분	2022	2023	2024
60-64세	29.16%	28.21%	27.10%
65-74세	38.99%	39.66%	40.41%
75세 이상	31.85%	32.13%	32.48%

* 출처 : 서울특별시, 연령별 인구현황

2. 서대문구 노인 사회참여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 현황

가. 서대문구 노인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서대문구는 서대문시니어클럽을 중심으로 노인의 일자리 창출을 바탕으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사업 유형별 배정인원은 공익활동형이 4,582명(87%)으로 가장 많으며, 사회 서비스형 461명(9%), 시장형 131명(2%), 취업알선형 116명(2%)으로 구성됨

〈 표 2-11 〉 서대문구 노인 일자리사업 현황(2024)

구분	사업수	배정인원	지원자격	비고
계	-	5,290	-	-
공익활동	42	4,582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월 30시간 근무, 만근 시 290천원 (일부사업 50천원~100천원 추가지급)
사회 서비스형	216	461	65세 이상자	월 60시간 근무, 월 최대 761천원 (기본급 월 최대 634천원, 주휴·연차수당 연 1,585천원 이내)
시장형	96	131	60세 이상	보조금 월 최대 250천원 + 수익금
취업 알선형	54	116	60세 이상	민간 수요처 근로계약에 따름

* 출처 : 서대문구, 2024년 업무보고

1) 공익활동형

- 지역 환경정화, 교통안전 지도,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 공공성을 강화하는 활동
- 참여자 수가 가장 많고 접근성이 높으나, 단순 업무 위주로 전문성을 지닌 노인의 역량 발휘에는 한계가 있음

2) 사회서비스형

- 요양시설 돌봄, 아동·장애인 지원, 보육시설 안전관리 등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와 직접 연결된 활동
 - 안정적인 근로조건과 보수가 장점이나, 참여 정원이 제한적이라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임

3) 시장형

- 카페, 공동작업장, 매점 등 수익 창출형 사업으로, 노인의 자립적 경제활동을 지원
 - 창업 및 운영 경험 제공의 장점이 있으나, 보조금 의존도가 높아 사업 지속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4) 취업알선형

- 민간기업 및 지역 상권과 연계하여 경비·청소, 행사 지원 등 일자리를 연결
 - 최근 참여 규모가 확대되었으나, 근무환경이나 고용 안정성이 낮아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발전하기 어려움이 있음

5) 시사점

- 2024년 기준으로 서대문구는 65개 사업을 통해 총 5,290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참여 규모는 5천 명 내외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

〈 표 2-12 〉 서대문구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실적(2024)

(단위 : 명)

연도	추진내용	2022년	2023년	2024년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인원		4,987	4,896	5,290
유형별	공익활동	4,612	4,432	4,582
	사회서비스형	216	488	461
	시장형	96	148	131
	취업알선형	54	12	116

* 출처 : 서대문구, 2024년 업무보고

- 노인들의 자립과 경제활동 참여 의지를 보여주는 높은 참여율은 서대문구 노인들이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줌
- 다만, 일자리 사업의 유형이 공익활동형(4,582명)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다양한 직업적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노인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음

나. 서대문구 노인 여가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서대문구는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 노인복지센터 3개소, 노인교실 9개소, 경로당 120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노인의 여가·교류 활동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함

< 표 2-13 > 서대문구 노인 여가시설 현황(2024)

구분		운영프로그램/월	이용인원/일
서대문구 노인종합복지관		영어회화 등 148개	1,300명
노인 복지 센터	연희노인복지관	라인댄스 등 15개	160명
	인왕노인복지관	라인댄스 등 21개	120명
	북가좌노인복지관	생활한자 등 19개	110명
노인교실		난타, 노래교실 등 43개	약 70명/9개소

* 출처 : 서대문구, 2024년 업무보고

○ 특히, 복지관은 프로그램 다양성과 전문성을, 경로당은 접근성과 생활 밀착성을 각각 강점으로 가지고 있음

- 상기 시설에서는 건강체조, 음악교실, 미술·서예, 컴퓨터 교육 등 다양한 교양·취미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음. 대부분의 복지관 프로그램은 월 3천원 내외의 수강료로 운영되며 서대문구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복지관 회원 가입 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함
- 프로그램은 성격에 따라 건강/운동, 문화/예술, 정보화/교육, 여가/취미, 사회참여/자원봉사의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범주별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음

< 표 2-14 > 서대문구 노인 여가 프로그램 범주

범주	프로그램 상세
건강·운동 프로그램	건강체조, 실버요가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서예교실, 악기 연주 등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스마트폰 활용, 영어회화 등
여가·취미 프로그램	노래교실, 뜨개질/손공예 등
사회참여·자원봉사 프로그램*	경로식당 봉사단, 환경지킴이 봉사단 등

* 사회참여·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임. 필요시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제한하여 언급하고자 함

1) 건강·운동 프로그램

-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건강체조, 라인댄스, 실버요가, 실버스트레칭 등이 있으며, 이는 근력 강화, 균형 감각 유지, 생활 속 체력 증진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표 2-15 〉 서대문구 건강·운동 프로그램 예시(2025)

프로그램 명	운영기관	참여정원	운영시간
라인댄스, 댄스체조 등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연희노인복지관 등	20명 내외	주 1~2회
댄스스포츠 (스포츠댄스)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연희노인복지관 등	20명 내외	주 1~2회
시니어 태권도 교실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20명 내외	주 1~2회
태극권, 기체조 등	북가좌노인복지관	20명 내외	주 1회
탁구교실	인왕노인복지관	약 20명/9개소	주 1회

* 출처 : 서대문구 노인종합복지관, 연희노인복지관, 인왕노인복지관, 북가좌노인복지관 홈페이지

- 복지관 내에는 정규 운동교실 외에도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헬스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트레드밀·자전거·근력 운동 기구 등이 구비되어 있어 일상적인 운동 참여를 촉진하고 있음
-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고려하여 의자요가, 맞춤형 스트레칭 등 참여 수준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체적 제약이 있는 노인들도 무리 없이 건강 증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

2) 문화·예술 프로그램

- 서대문구는 어르신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정서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예술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서예, 미술, 음악 등 전통과 현대 예술을 아우르는 강좌를 개설하여 노인들의 자아실현 및 사회적 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있음

〈 표 2-16 〉 서대문구 문화·예술 프로그램 예시(2025)

프로그램 명	운영기관	참여정원	운영시간
서예교실, 문인화 교실 등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연희노인복지관 등	15~ 20명	주 1회
미술반(수채화, 드로잉 등)	연희노인복지관	15~ 20명	주 1회
민요 교실, 합창단 등	살림경로대학,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등	30명 내외	주 1회
하모니카, 기타 등 악기연주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북가좌노인복지관 등	10~15명	주 1회

* 출처 : 서대문구 노인종합복지관, 연희노인복지관, 인왕노인복지관, 북가좌노인복지관, 살림경로대학 홈페이지

- 구체적으로, 서예교실과 문인화교실에서는 전통 예술 기법을 학습할 수 있으며, 미술반에서는 수채화 및 색연필 드로잉 등 창작 활동을 통한 자기 표현이 가능함
- 음악 분야에서는 악기 연주, 민요, 합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동아리식 운영을 통해 기본 연주법 습득 후 합주곡 완성을 목표로 하며, 어르신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음
- 또한, 각 복지관에서는 풍물·난타반, 한국무용 교실 등을 통해 전통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들이 전통문화를 경험하고 계승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큼

3)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 서대문구는 어르신들의 학습 욕구 충족과 디지털 격차 해소, 평생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정보화 교육과 교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정보화 교육은 스마트폰 활용, 인터넷 기초, 문서 작성 등 실생활에 직접 연계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됨. 예를 들어,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컴퓨터 기초, 스마트폰 활용, 인터넷 검색 등을 교육함
 - 교양 교육 분야에서는 어학 및 인문학 강좌가 다채롭게 개설되어 있음. 생활 중국어, 기초 영어회화, 일본어, 독일어 기초 등 외국어 교실을 비롯해 역사 이야기, 문학 감상 등의 인문교양 강좌도 운영되어 높은 호응을 얻고 있음

〈 표 2-17 〉 서대문구 정보화·교양 프로그램 예시(2025)

프로그램 명	교육 내용	운영기관	운영시간
컴퓨터기초, 인터넷 활용 등	타자연습, 인터넷 검색 등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연희노인복지관 등	주 1회
스마트폰 활용, 스마트폰 사진촬영 등	스마트폰 앱 사용, 카메라 활용 등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북가좌노인복지관 등	주 1회
한글교육, 생활한자 등	한글 교육 및 일상 한자 학습	연희노인복지관, 북가좌노인복지관 등	주 1~2회
영어회화, 일본어 회화 등	기초 영어/일본어 단어 및 회화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연희노인복지관 등	주 1회

* 출처 : 서대문구 노인종합복지관, 연희노인복지관, 인왕노인복지관, 북가좌노인복지관 홈페이지

4) 여가·취미 프로그램

- 서대문구는 어르신들의 친목과 여가 선용을 위해 다양한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노래, 놀이, 취미공작 등 비교적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주를 이룸
 - 대표적으로 노래교실은 각 복지관에서 주 1회정도 운영되며, 수십 명이 참여할 정도로 호응이 높음. 전문 강사의 진행과 반주를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공연 욕구 충족에 기여함
 - 이외에도 웃음치료 교실, 원예교실 등은 정서 안정과 긍정적 마음 건강을 지원하며, 일부 복지관에서는 요리·다도 교실과 같은 생활취미 프로그램, 바둑·장기 동아리 등 자유편모임도 활성화되고 있음

〈 표 2-18 〉 서대문구 여가·취미 프로그램 예시(2025)

프로그램 명	운영기관	운영시간
노래교실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북가좌노인복지관 등	주 1회
웃음치료/원예치료 교실	인왕노인복지관, 북가좌노인복지관	주 1회
다도, 요리교실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연희노인복지관	주 1회
바둑/장기 동아리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연희노인복지관 등	상시

* 출처 : 서대문구 노인종합복지관, 연희노인복지관, 인왕노인복지관, 북가좌노인복지관 홈페이지

5) 사회참여·자원봉사 프로그램

- 서대문구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이를 통해 지역사회 기여와 보람 있는 노후 생활을 장려함
- 복지관별로 봉사단을 조직·지원하고 있으며,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도서실·환경미화 등 복지관 운영 지원, 컴퓨터 교육 보조 및 급식 배식과 같은 생활형 봉사, 합창단·악기합주단 등 공연 봉사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와 교류함
 - 이러한 사회참여 활동은 경로당, 요양시설, 지역 축제 등 다양한 현장에서 전개되며, 어르신들의 자존감 제고와 사회적 연대 강화에 기여함

〈 표 2-19 〉 서대문구 자원봉사 프로그램 예시(2025)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상세	비고
스마트봉사단	정보화교육 강사 보조, 컴퓨터, 스마트폰, 키오스크 활용법 안내	컴퓨터 활용능력 필요
경로식당 봉사단	경로식당에서의 배식, 설거지 등 업무 보조	제한 없음
은빛공연봉사단 시니어 인형극단	지역사회 내 공연봉사 및 교류활동	관련 능력 보유자

* 출처 : 서대문구 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다. 서대문구 노인 관련 정책 분석

1) 정책의 법적·제도적 기반

- 서대문구의 노인복지·여가·사회참여 정책은 「노인복지법」 등 상위 국가 법령을 토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등 각종 자치조례에 근거해 추진됨
 - 조례의 주요 내용은 노인 건강증진, 사회·문화활동 지원, 복지시설 확충, 학대예방,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집행체계와 기초 시책을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법적 기반은 WHO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공공공간, 교통, 주거, 사회/시민참여, 존중과 포용, 일자리, 정보, 건강·복지서비스)과 방향성을 공유하며, 서울시 차원의 ‘고령친화도시’ 전략과도 연계됨

2) 서대문구 노인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 현황

- 서대문구의 노인 관련 주요 사업은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효행 장려금, 목욕비 지원, 보행기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여가·복지시설 운영, 맞춤형돌봄 서비스, 조직·단체 운영 등으로 구분됨

< 표 2-20 > 노인 관련 주요 사업 현황

분류	프로그램 상세
기초연금	매년 1.2~1.3조 원 규모로 전체 예산의 약 75~80%를 차지하며, 서대문구 노인정책의 핵심 사업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연 1,600억~2,000억 원 규모로 약 5천 명의 어르신이 참여하였으며, 안정적인 집행
경로당 운영 및 냉난방비 지원	연 250억~300억 원 수준으로, 생활밀착형 지원에 집중
여가, 복지시설 운영	약 100억 원 내외로 복지관·노인교실 등을 중심으로 운영
맞춤형 돌봄 및 건강 증진	연 80억 원 내외로 예방적 성격을 지니며,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서대문노인복지관요양센터 등 총 11개이며, 장기요양급여 청구하여 기관 자체 운영
데이케어센터 운영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데이케어센터 등 총 19개이며, 장기요양급여 청구하여 기관 자체 운영
효행장려금, 목욕비 등 소규모 사업	예산 비중은 작지만 정서적인 지원 제공

* 출처 : 서대문구 내부 자료

가) 기초연금 지급

- 기초연금은 매년 1.2~1.3조 원 규모로 전체 예산의 75~80%를 차지하는 핵심 사업임
- 2023년에는 월평균 34,364명, 2024년에는 35,325명, 2025년에는 35,780명에게 월 29만~30만 원 수준이 지급되었음
- 집행률은 94~95%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지급 대상자 수와 금액 모두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서대문구는 노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기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5,29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였음. 연간 예산 집행률은 82~97%로 대체로 안정적임
- 참여자의 87%가 공익활동형에 몰려 있어 대규모 수용에는 성공했으나, 직업적 배경과 전문성을 살린 활동에는 한계가 있음
- 사회서비스형은 사회복지 수요와 연계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제공하나 참여 규모가 제한적이며, 시장형은 자립적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나 보조금 의존도가 높아 지속성에 제약이 있음. 취업알선형은 민간기업과 연계되지만 안정성이 낮아 장기적 지속에 어려움이 있음

< 표 2-21 > 서대문구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2024)

구분	사업 수	배정인원	비율	지원 자격	주요 특징 및 한계
공익활동형	42개	4,582명	87%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대규모 참여 가능, 접근성 우수 / 단순·반복적 업무 위주
사회 서비스형	216개	461명	9%	65세 이상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 사회복지 수요와 연계 / 참여 규모 제한
시장형	96개	131명	2%	60세 이상	자립적 경제활동·창업 기회 제공 / 보조금 의존, 지속성 부족
취업알선형	54개	116명	2%	60세 이상	민간기업 연계 통한 고용 / 안정성 낮아 장기 지속 어려움

* 출처 : 서대문구, 2024년 업무보고

다) 경로당 운영 및 냉난방비 지원

-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은 연 250억~300억 원 수준으로 편성되어 관내 경로당의 생활 밀착형 지원에 집중하고 있음
 - 연간 약 250억~300억 원이 투입되며, 시설 유지 및 기본 운영을 안정적으로 보장함
 - 경로당 환경개선, 리모델링, 비품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집행률은 85~95%로 안정적임

라) 여가·복지시설 운영

- 구립노인복지관 3개소, 노인교실 11개소 등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연간 90억~1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됨
 - 주요 프로그램은 건강관리, 취미·여가, 평생학습 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집행률은 85~90% 수준으로 안정적이나, 프로그램 다양성과 참여율 확대가 과제로 남음

마) 맞춤형 돌봄 및 건강 증진

- 2025년 도입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약 1,970명에게 정기적 가정방문, 안전 점검, 정서지원, 사회참여 연계까지 포함한 통합 케어를 제공하며, 건강한 노인과 요양급여대상자 중간층에 집중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음
- 특히, 건강한 노인과 요양등급 판정 대상자 사이의 ‘중간 수준 노인’을 집중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예방적 성격이 강함. 이는 장기적으로 고비용 요양수요를 줄이고 지역사회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단순한 신체 돌봄에 그치지 않고 정서 지원, 사회참여까지 포함하고 있어, 고립 예방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 기여가 예상됨. 다만, 서비스 균형(지역별 제공 격차, 대기자 문제 등)은 추가 개선이 필요할 수 있음

바)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 서대문구에는 총 11개소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약 300명 내외의 어르신을 수용할 수 있음. 모든 시설은 장기요양급여 청구를 통해 운영되며, 사회복지법인·의료재단·개인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음
 - 주요 서비스로는 의료·간호 서비스, 재활 및 인지기능 강화 프로그램, 생활 돌봄 지원 등이 제공됨. 이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필수적인 의료·돌봄 서비스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시설 운영은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었으나,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공급 규모가 부족한 상황임.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현시점에서 향후 장기요양 수요 확대에 대한 대응력이 한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큼
-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의료재단·개인 등) 역량 차이에 따라 서비스 질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일부 시설은 전문 인력을 갖추고 체계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반면, 소규모 시설은 서비스 다양성과 질적 관리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이 나타남

사) 데이케어센터 운영

- 서대문구 내에는 총 19개소의 데이케어센터가 운영 중이며, 약 500명 정도의 어르신을 낮 동안 보호할 수 있음. 장기요양급여 청구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 개인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음
 - 제공되는 주요 프로그램은 인지기능 향상(치매 예방), 운동보조, 식사 및 간식 제공, 송영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를 통해 신체적 돌봄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음
 - 데이케어센터는 낮 시간 돌봄을 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가 노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핵심 기반 시설로 기능하고 있음. 이는 장기요양시설 입소 이전 단계의 완충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큼
- 다만,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협동조합·개인 등)로 서비스 질과 프로그램 다양성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에서는 전문 인력 확보와 체계적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예방적·재활 중심 서비스의 강화와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주요 과제로 지적됨

아) 효행장려금, 목욕비 등 소규모 사업

- 서대문구는 효행장려금, 저소득 어르신 목욕비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등 소규모 사업을 병행하여 노인들의 정서적 지원과 실질적인 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 해당 소규모 사업들은 집행을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수요자 발굴 및 홍보 채널의 다각화를 통해 정책 혜택이 필요한 대상에게 누락 없이 전달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서울시와의 정책 연계점

- 서울시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어르신 복지 종합계획」을 수립, 일자리 10만 개 발굴, 시니어인턴제, 통합돌봄체계 구축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함
 - 서대문구는 이러한 상위 정책과 긴밀히 연계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함
 - 이러한 연계성은 서대문구가 서울시 정책의 집행단위로서 실질적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동시에 시 차원의 예산 및 자원 배분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확보하는 기반이 됨
 - 특히, 서대문구는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추어 시 정책을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 체감도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4) 종합적 한계와 개선 필요성

- 서대문구의 노인 정책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일자리 유형의 편중, 질적 성과의 제약, 돌봄 서비스의 균형 문제, 참여 주체의 한정성 등 여러 과제가 병존하고 있어 향후 보완이 필요함
 - 양적 집중의 한계 : 일자리사업의 87% 이상이 공익활동형에 집중되어 직무 다양성·전문성 확대에 구조적 한계가 있음
 - 질적 성과 제한 :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사업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노인들의 전문성 활용 및 자립적 활동 확대에 한계가 있음

- 돌봄 서비스 불균형 : 예방중심이 강화된 점은 긍정적이나, 지역별 서비스 제공 격차와 대기자 문제 등 공급 불균형 문제가 여전히 존재함. 특히 인력·재정 한계로 인해 보편적 서비스 확산에는 제약이 따름
 - 참여 주체의 한정성 : 정책 추진이 공공기관 중심에 머물러 민간 시설·문화 공간·대학 등의 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함. 지역사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포괄적 거버넌스 구축 필요함
 - 시설 공급 및 서비스의 수준의 한계 : 의료복지시설과 데이케어센터는 기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초고령사회 수요를 고려할 때 공급량이 부족하며 서비스 질의 표준화 역시 요구됨. 장기적으로는 시설 확충과 함께 예방적·재활 중심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함
- 향후 정책은 예산 구조 다변화, 소규모 사업 집행 효율성 제고, 성과 기반 관리 체계 도입, 민관 협력 확대, 시설 확충 및 표준화 강화 등을 통해 예방적·통합적 고령사회 대응 체계로 발전해야 함

3.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 분석

가. 국내 노인 여가 및 사회참여 관련 연구 동향

1) 여가활동과 신체·심리적 건강의 연관성

- 국내 노인 여가 관련 연구들은 여가활동이 노년층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음. 특히, 단순한 여가활동 참여 여부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여가활동에 참여하는지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음
- 신체적 건강 측면에서, 여가시간을 활용한 신체활동은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규칙적인 운동이나 활동 중심 여가는 만성질환 예방과 신체 기능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됨
- 심리적 건강과 관련해서는, 여가활동이 노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우울감·외로움·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됨. 신지영(2022) 「노인의 여가활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여가활동 참여 노인이 비참여 노인에 비해 우울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이 효과는 남녀 노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남
- 삶의 만족도와 행복 증진 효과 역시 강조되고 있음. 서울연구원(2023) 「시니어 간 여가 격차 해소 방안: 여가 역량 관점」에 따르면, 여가활동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감도 함께 높아지며, 특히 동호회·자원봉사·여행 등 능동적이고 사회적인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일수록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동적 여가활동(예: TV 시청, 낮잠 등)은 휴식과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능동적 여가활동이 신체적·심리적 건강에 더 큰 긍정적 효과를 제공한다는 연구 결과가 지배적임. 이는 활동적 참여가 사회적 관계망 확대와 자아효능감 향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으로 해석됨

2) 디지털 역량과 사회적 연결망

- 현대 사회가 빠르게 디지털화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은 일상생활의 필수 요소가 되었음. 이러한 변화는 노인 세대에게 새로운 사회 참여와 여가 확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디지털 소외(digital divide)”라는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음
- 서울연구원(2023)의 「시니어 간 여가 격차 해소 방안: 여가 역량 관점」은 노인의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과 여가 인식 수준에 따라 여가 활동 참여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디지털 역량이 높은 노인일수록 온라인 교육, 비대면 모임, 정보 탐색 등 다양한 여가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하고, 더 높은 생활 만족도를 보인다고 밝혔음

〈 표 2-22 〉 디지털 역량에 따른 노인 여가활동 비교

구분	상세 내용	상	중	하
여가 다양성	한 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 개수	16.8	9.1	3.6
여가 비용	월평균 여가비용(원)	209,824	127,111	112,553

* 출처 : 서울연구원, 「시니어 간 여가 격차 해소 방안: 여가 역량 관점」 (2023)

- 반대로 디지털 활용 능력이 낮은 노인들은 TV 시청, 단순 산책 등 전통적이고 수동적인 활동에 주로 머무르며, 디지털 서비스 확산으로 인해 일상생활 접근성에서조차 제약을 경험하고 있음
 - 특히 공공기관·상업시설에서 키오스크 보편화가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소외 노인들은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편과 소외를 겪고 있음. 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고립과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복지 과제임
- 강신원(2023)의 「노인 계층의 디지털 소외와 포용 - 주요국의 사례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선진국 사례를 분석하며 디지털 포용(digital inclusion) 전략이 노인의 사회 참여와 여가 확대에 직결됨을 강조함

- 유럽연합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 향상, 디지털 리터러시 개선, 고령 친화적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특히, 노인 계층의 디지털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더 큰 글꼴 크기, 고대비 디스플레이 및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같은 고령 친화적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데, 이는 한국에도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
- 허성호(2020)의 「디지털 격차가 노인의 디지털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는 60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실증 분석에서, 디지털 활용 능력이 높을수록 자신감, 자기통제감, 디지털 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며, 이는 노인의 전반적 삶의 질과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줌. 이는 단순히 ‘기술 교육’을 넘어 정신적 건강 및 사회적 연대성 확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임을 시사함
-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서대문구 정책 방향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줌. 단순한 디지털 기기 교육 제공 차원을 넘어, 정기적인 디지털 역량 조사, 노인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 대학생·청년 세대와 연계한 멘토링 프로그램, 경로당·복지관 내 체험존 운영 등 포괄적 접근이 필요함. 이는 노인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뿐 아니라, 여가 다양화·사회참여 확대·고립 예방이라는 다층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음

3) 문화예술 활동의 중요성 재조명

- 기존의 노인 여가정책은 주로 체육·건강 활동에 집중되어 왔으나, 최근 노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욕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대응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서울연구원 연구(윤민석·이승재, 2023) 「초고령사회 대비한 서울시 노인문화정책 활성화 방안」은 서울시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노인 문화정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해당 연구는 노인의 문화 참여 실태와 욕구를 진단하고, 공연 관람, 미술·공예, 원예 등 문화 향유형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 지원은 여전히 체육·건강 중심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함

- 문화예술 활동은 단순한 취미 생활을 넘어, 정서적 안정, 삶의 만족도 제고, 인지 기능 유지 및 치매 예방, 세대 간 교류 촉진 등 다층적인 효과를 제공하는 복지 자원으로 평가되며,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따라서 정기적인 문화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노인의 수요 변화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체계적 노력이 필요함
- 서대문구 또한 기존의 체육·건강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문화·예술 분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균형 잡힌 노인 여가정책을 마련해야 함
 - 구체적으로는 지역 내 문화예술기관·대학과의 협력 모델 구축 경로당·복지관 내 소규모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야외 공간을 활용한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4) 사회참여 유형별 심리적 효과

- 노인의 사회참여는 단순한 시간 활용을 넘어, 삶의 의미와 자아존중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활동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김세진, 2021)의 「한국 노인의 삶과 인식 변화 -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은 노인 일자리와 자원봉사 활동이 삶의 만족도와 목적의식 향상, 사회적 관계망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보여줌
 - 특히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축소된 노인에게 있어, 이러한 활동은 자아존중감 회복과 사회적 고립 예방을 돕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함. 이는 개인의 정신적 안정뿐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의 포용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함
-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사회참여가 노인의 정서적 안정, 삶의 만족, 사회적 관계망 확대, 인지적 건강 유지 등에 종합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일관되게 시사함. 이는 단순한 여가 프로그램 제공을 넘어, 노인의 경험과 역량을 사회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회 창출이 필요함을 의미함
- 따라서 노인들에게는 단순 참여 기회 제공을 넘어,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사회참여 모델이 필요함. 예를 들어, △노인 적합형 일자리 확대 △봉사활동 연계 프로그램 강화 △세대 간 교류형 사회참여 프로젝트 개발 등을 통해 자아존

증감과 심리적 건강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음

- 서대문구 또한 단순 여가·휴식 지원에 그치지 않고, 노인의 사회적 역량을 활용하는 참여형 복지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는 △경험 기반의 노인 일자리 발굴 △지역사회 자원봉사 네트워크와 연계한 참여 모델 개발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여, 노인의 심리적 회복과 지역사회 활력을 함께 도모해야 함

나. 고령친화도시 정책 프레임워크와 국제 동향

- 국제적으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2007년 발표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가 도시 정책의 중요한 준거들이 되고 있음. 이 가이드에 제시된 8대 생활영역(야외공간 및 건축물, 교통, 주거, 사회적 참여, 존중 및 사회 포함, 시민참여 및 고용, 소통 및 정보, 지역사회 지원 및 보건서비스)은 노인의 삶의 질을 다면적으로 고려한 포괄적인 접근을 강조함
 -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한 국내외 도시들은 이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노인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는 통합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는 고령친화도시 구축이 단편적인 사업 추진이 아닌, 도시 전체의 환경과 시스템을 노인 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종합적인 과정임을 보여줌
- 국내에서도 이러한 WHO 기준을 참조한 다수의 연구와 정책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AFC Global Network)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도시공간계획, 복지전달체계, 문화·여가정책의 통합적 설계 사례가 축적되고 있음
 - 국내는 서울특별시(한국 최초로 2013년 가입), 세종특별자치시 등 광역 8개 내외, 안동시 등 기초 50여개가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고령친화도시 구축의 핵심 요인으로는 노인 당사자의 의견 반영, 민·관 협력 거버넌스, 지역 내 복지자원과의 연계 등이 강조되며, 특히 사회참여와 지역 커뮤니티 통합이 중요한 전략적 요소로 부각됨
 - 서울시 ‘시니어 정책모니터링단’ : 매년 주제별로 60+ 시민 약 50명이 참여해 정책 제안·점검. 당사자 참여의 대표 사례임

다. 종합 시사점

- 선행연구 및 국제적 논의를 종합하면, 서대문구의 노인 여가·사회참여 정책 수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첫째, 능동적 여가 중심 전환: 활동적·사회적 여가가 신체·정신 건강과 삶의 만족을 가장 크게 높임
 - 둘째, 디지털 포용을 참여의 관문 인프라로 활용: 디지털 역량이 온라인 학습·비대면 모임·정보 접근을 가능케 하고, 격차는 고립·배제를 심화함
 - 셋째, 문화예술의 정책 위상 격상: 정서 안정·인지 기능 유지·세대교류 촉진 효과가 큼에도 지원이 체육 중심에 편중됨
 - 넷째, WHO 8대 영역 기반 ‘묶음형’ 설계: 이동·주거·정보·보건·공간은 상호의존적이라 단품 사업으로는 시스템 전환이 어려움
 - 다섯째, 노인 당사자 상시 참여의 제도화: 현장 적합성과 지속성을 높이고 정책 신뢰를 강화함
 - 여섯째, 민·관·학 연합 거버넌스로 지속가능성 확보: 복지·보건·교통·문화가 교차하는 과제는 단일 부서로 한계가 있음
 - 일곱째, 커뮤니티케어와 사회참여의 선순환 연결: 건강관리와 참여가 연결될 때 고립·우울 예방과 지역복귀·일상회복이 촉진됨
 - 마지막으로, 혁신적 접근 병행: ICT 활용·세대통합 프로그램·고령친화적 공간 조성 등 신모델 도입

Ⅲ. 지역사회 자원 조사 및 노인 욕구 파악

1. 서대문구 활용 가능 지역자원 실태 조사

가. 서대문구 내 노인 관련 지역자원

- 서대문구는 노인의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풍부한 지역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이들 자원은 단순한 시설을 넘어, 노인들의 일상생활 거점이자 커뮤니티 허브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공공시설로는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구립 노인복지관 3개소, 노인교실 9개소, 데이케어센터 19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11개소, 그리고 가장 생활밀착형 인프라인 120개소의 경로당이 포함됨. 이 외에 서대문시니어클럽과 같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도 중요한 자원임. 이러한 공공자원들은 이미 노인복지의 핵심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시 효율적인 운영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음

〈 표 3-1 〉 서대문구 노인 관련 시설 현황(2024)

계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노인종합 복지관	구립노인 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데이 케어센터	노인의료 복지시설
164	1	1	3	120	9	19	11

* 출처 : 서대문구, 2024년 업무보고

1) 서대문시니어클럽

- 서대문구에서 위탁받아 동방사회복지회가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으로, 지역 내 시니어에게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 그림 3-1 > 서대문시니어클럽 개요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회
-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 15, 1층
- 전화번호 : 02 - 6380 - 9988
- 시설 현황 : 2개 사무실, 8개 사업장
- 주요 사업 : 노인 일자리 제공 및 구직처 연계 취업 알선 등 지속가능한 양질의 노인 일자리 사업개발 및 수행

* 출처 : 서대문시니어클럽 홈페이지, 서대문구청 블로그

○ 서대문시니어클럽은 총 4개의 팀(운영지원팀, 사업 1, 2, 3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 그림 3-2 > 서대문시니어클럽 조직도



* 출처 : 서대문시니어클럽 홈페이지(2025.08.23)

- 서대문시니어클럽은 총 4가지(공익활동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로 구분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함

< 표 3-2 > 서대문시니어클럽 일자리 사업 예시

구분	사업 예시
공동체 사업단 (시장형)	세탁물 수거·세탁·정리 및 포장·배달, 이동식스팀세차, 밀반찬제조 및 판매 등
노인공익 활동사업 (공익활동형)	공공시설 도우미, 교통안전지킴이, 자원재활용 등
노인역량 활용사업 (사회서비스형)	지역사회 내 보육시설 지원, 식물 클리닉 운영을 통한 반려식물관리 지원 등
취업알선	구인처와 구직자 연계, 무료 직업소개 등

* 출처 : 서대문시니어클럽 홈페이지(2025.08.23)

- 서대문시니어클럽은 카페이스턴, 영미김밥, 야미야미 등 8개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참여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음

< 표 3-3 > 서대문시니어클럽 주요 사업장

구분	상세 내용	소재지
리리박스	양말목 리폼 [시장형]	증가로 15, 2층
카페이스턴	시니어카페 [시장형]	모래내로 173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1층]
카페무악	시니어카페 [시장형]	통일로 358-1 [무중력지대 1,2층]
야미야미	밀반찬 제조 [시장형]	가재울미래로 15, B동 102호
뽕송뽕송	빨래방 [시장형]	증가로4길 38-9 [홍남경로당 2층]
영미김밥	동행식당(영미김밥) [시장형]	연희로 241, 1층 [구청 맞은편]
시니어프로듀서	홍보영상물 제작 [사회서비스형]	통일로 555-1 [상지경로당 2층]
시니어식물병원	식물케어서비스 [사회서비스형]알선	증가로12가길 23-24 [前남이마을경로당 1층]

* 출처 : 서대문구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2024)

- 서대문시니어클럽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은 3년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특히,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2년 간 약 3배 가량 성장함

< 표 3-4 > 서대문시니어클럽 추진 실적 및 목표(2024)

구분	단위	2022년 실적	2023년 실적	2024년 실적
공동체 사업단 (시장형)	명	97	125	131
노인공익 활동사업 (공익활동형)	명	660	681	858
노인역량 활용사업 (사회서비스형)	명	150	265	486
취업알선	명	-	12	101

* 출처 : 서대문시니어클럽 홈페이지(2025.08.23)

2) 서대문구 노인종합복지관

- 서대문구 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 내 노인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 그림 3-3 > 서대문구 노인종합복지관 개요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새문안교회사회복지재단 •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8길 57 • 전화번호 : 02-363-9988 • 시설 규모 : 대지 1,722㎡ 건평 3,402.68㎡, 지하1층 - 지상4층 • 개관일자 : 2005.06.14 • 주요 사업 :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	---

* 출처 : <http://www.sdmsenior.or.kr/>(2025.08.23)

- 시설은 4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층에 걸쳐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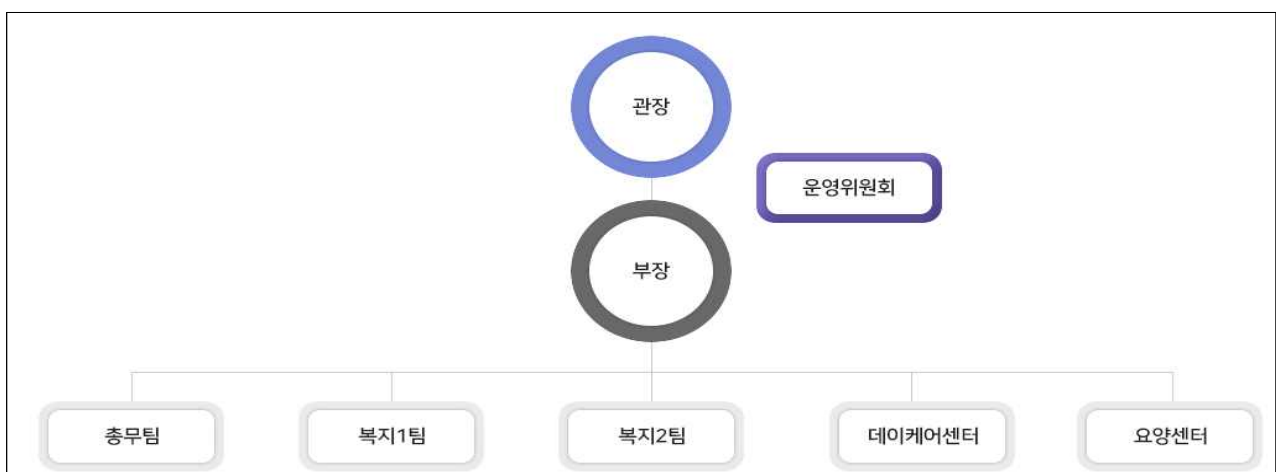
< 표 3-5 >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시설현황

구분	면적(㎡)	주요 시설
지하 1층	702.16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사무실(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교육실, 세탁실
1층	818.26	데이케어센터, 물리치료실/웰빙운동실, 건강관리실, 사무실(노인일자리사업), 경로식당, 휴게실, 주차장
2층	955.36	서대문노인복지관요양센터, 통합사무실, 집단활동실, 회의실, 문화활동실, 도서실
3층	556.89	강당, 하늘공원, 서예실, 바둑장기실, 야외휴게실, 교육실, 동아리실
4층	370.01	관장실, 전문상담실(노인자살예방센터), 교육실, 컴퓨터실, 자료실, 방송실

* 출처 :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2025.08.23)

- 서대문구노인종합복지관은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장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체계로 운영함. 관장 아래에는 부장이 실무를 총괄하며, 그 아래 다섯 개의 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 이러한 조직 구조는 행정, 프로그램 운영, 전문 돌봄 서비스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어 어르신들의 다양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그림 3-4 >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조직도



* 출처 :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2025.08.23)

< 표 3-6 >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조직현황

구분	인원(명)	주요 시설
총무팀	9	복지관 행정 및 경영 지원 담당
복지 1팀	12	노년 사회화 교육, 상담, 고령자 취업알선, 건강지원사업 등
복지 2팀	16	후원개발사업, 자원봉사육성사업, 노인자살예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데이케어센터	8	요양보호, 간호, 조리 등 주간보호 서비스 제공
요양센터	14	요양보호 및 간호 서비스 제공

* 출처 :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2025.08.23)

-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주요 사업은 아래와 같으며 지역 내 노인의 여가생활과 사회참여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함

< 표 3-7 >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주요 사업 현황

구분	사업 내용
노년사회화 교육	학습능력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보람된 노후설계를 지원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전문 자원봉사 활동을 희망하는 노인에게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노년기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기반을 형성
지역복지 활성화사업	경로당 이용 노인의 욕구에 맞는 여가 프로그램 지원 및 유기적인 연계, 복지정보 제공을 통한 고령친화 생태계 조성
고령자취업 알선사업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 대상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유휴 노동력의 활용을 통해 노인의 소득증대 및 여가 선용을 도모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공익 활동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지원

* 출처 :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3) 구립노인복지관

- 서대문구에는 3개(연희·북가좌·인왕)의 구립 노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복지관은 지역 어르신들의 평생교육과 문화·여가활동, 건강관리 및 돌봄, 사회참여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 기반 복지 거점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음

〈 표 3-8 〉 서대문구 구립노인복지관 현황

시설명	이용자수/일	운영체	주소
연희노인복지관	160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천로2길 111
북가좌노인복지관	110	사회복지법인 수효사회복지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20길 43
인왕노인복지관	120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12-5

* 출처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2025.08.23)

가) 연희노인복지관

- 연희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 내 노인의 건강증진,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 취약 계층 어르신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이를 통해,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 그림 3-5 > 연희노인복지관 개요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회 •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천로2길 111 • 전화번호 : 02 - 3143 - 7778 • 시설 규모 : 대지 422.96㎡ 면적 956.72㎡ 지하1층 - 지상 4층, 옥상 • 개관일자 : 2005.02.28 • 주요 사업 : 노인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지원, 평생교육,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
---	---

* 출처 : <http://www.yhsenior.or.kr/>(2025.08.23)

- 시설은 5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층에 걸쳐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음

< 표 3-9 > 연희노인복지관 시설현황

구분	면적(㎡)	주요 시설
지하 1층	208.84	공동작업장 1, 2, 프로그램실
1층	101.00	관장실, 사무실, 경로식당
2층	238.16	연서경로당, 스마트라운지
3층	164.36	서대문시니어클럽
4층	164.36	다목적 강당
옥상	68.03	옥상정원

* 출처 : 연희노인복지관 홈페이지(2025.08.23)

- 연희노인복지관은 관장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분화형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각 직원이 전문 영역을 맡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조직은 의사결정 자문기구, 관리 책임자, 그리고 분야별 실무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돌봄·식사·행정·디지털 역량 강화 등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를 수행함

< 그림 3-6 > 연희노인복지관 조직도



* 출처 : 연희노인복지관 홈페이지(2025.08.23)

- 연희노인복지관은 교양·평생교육, 건강·여가 프로그램, 데이케어·요양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각 영역별 노인의 취미·학습·문화·건강·사회참여를 종합적으로 지원함

〈 표 3-10 〉 연희노인복지관 주요 사업

구분	내용
건강생활 지원사업	노인 건강 유지를 위한 노인성질환의 강좌 및 예방, 의료정보 교육 및 제공
재가복지사업	서대문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노인 대상 지역자원연계, 일상생활지원 등 서비스 제공
무료급식사업	재가 대상자 대상 무료 급식 제공을 통한 식습관 개선 및 영양관리
노년사회화 교육사업	노인 욕구에 맞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여가 프로그램 지원
문해교육 사업	비문해 성인 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경로당디지털 튜터사업	지역 내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스마트폰, 키오스크 활용법 등 디지털 교육 제공

* 출처 : 연희노인복지관 홈페이지(2025.08.23)

- 특히, 연희노인복지관은 노년사회화교육사업 “청춘교실”을 통해 건강증진, 학습·여가, 특별프로그램 등의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인들의 다양한 여가 및 건강증진 욕구를 충족함

〈 그림 3-7 〉 연희노인복지관 청춘교실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요일	수업시간	프로그램실	정원
라인댄스	월요일	10:00~10:50	4층 강당	20명
의자요가	화요일	10:00~10:50		15명
스포츠댄스(초급)	화요일	11:00~12:30		24명
스포츠댄스(중급)	화요일	14:00~15:30		24명
맷돌체조	수요일	09:20~10:10		20명
단학기공	수요일	10:30~11:20		20명
미술반	목요일	10:00~12:00		10명
노래교실	목요일	13:00~14:30		40명
영어 기초문법	목요일	13:00~13:50	지하교육실	10명
영어 기초회화	목요일	14:00~14:50		10명
오카리나	목요일	16:00~16:50	4층 강당	10명
요가	금요일	10:00~10:50		18명
건강댄스	금요일	13:30~14:20		20명

* 출처 : 연희노인복지관 홈페이지(2025.08.23)

나) 북가좌노인복지관

- 북가좌노인복지관은 2005년 개관 이후 약 20년 간 지역사회 내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과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림 3-8 〉 북가좌노인복지관 개요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 •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20길 43 • 전화번호 : 02 - 376 - 5040 • 시설 규모 : 대지 278㎡ 면적 477.51㎡ 지하 1층 - 지상 3층 • 개관일자 : 2005.12.26 • 주요 사업 : 관내 노인들의 전인적 복지 증진을 목표로 건강, 여가, 사회참여 및 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
--	--

* 출처 : 북가좌노인복지관 홈페이지(2025.08.23)

- 시설은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층에 걸쳐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음

〈 표 3-11 〉 북가좌노인복지관 시설현황

구분	주요 시설
지하 1층	경로식당
1층	북가좌실버미용실, 은가경로당(구청직영)
2층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3층	강당, 테라스

* 출처 : 북가좌노인복지관 홈페이지(2025.08.23)

- 북가좌노인복지관은 관장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 역할을 하며, 팀장이 지역자원 연계와 특화사업을 총괄하는 구조임. 또한 사회복지사(평생교육·노인일자리), 영양사·조리사(경로식당 운영), 안전관리인(시설관리) 등 역할이 명확히 분화되어 교육·돌봄·급식·안전관리 기능을 균형 있게 수행하는 소규모 전문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림 3-9 〉 북가좌노인복지관 조직도



* 출처 : 북가좌노인복지관 홈페이지(2025.08.23)

- 북가좌노인복지관은 교양·평생교육, 건강·여가 프로그램, 데이케어·요양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각 영역별 노인의 취미·학습·문화·건강·사회참여를 종합적으로 지원함

〈 표 3-12 〉 북가좌노인복지관 주요 사업

구분	내용
무료급식 지원사업	지역 내 돌봄 필요자 대상 중식, 명절특식, 간식 등 생활지원서비스 제공
일상생활 지원사업	상담·정서 지원, 이미용 서비스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
연계지원사업	공공/민간 기관 등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 욕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
평생교육사업	신체여가, 학습프로그램 등 지역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및 관계형성을 지원
교육 및 건강지원사업	안전교육, 사회성향상교육, 건강지원사업 등 다양한 노인대상 교육을 제공하여 주체적인 노년 생활을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득보장 및 사회소속감 증진에 기여

* 출처 : 북가좌노인복지관 홈페이지(2025.08.23)

- 특히, 북가좌노인복지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건강관리, 문화예술, 디지털 역량, 교양학습으로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음. 이는 노인의 신체적 건강 유지, 정신적 안정, 사회적 참여 확대, 세대 통합이라는 다층적 목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함

< 그림 3-10 > 북가좌노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운영시간	요일	프로그램명	운영시간	요일
생활한자	10:00~11:00	월	기체조	10:30~12:00	목
웃음테라피	10:00~11:00		바둑교실	13:00~14:00	
우리가락민요	11:00~12:00		태극권	13:00~14:00	
건강백세운동교실	11:00~12:00		뉴스포츠	14:00~15:00	
스마트폰교육	13:00~16:00		댄스스포츠	15:00~16:00	
힐링노래교실	09:30~11:00	화	청춘영어	10:00~11:00	금
스마트폰교육	13:00~16:00		건강체조	13:00~14:00	
요가교실1부	13:00~14:00		칼림바	14:00~15:00	
요가교실2부	14:00~15:00		<시설개방 프로그램 안내> - 피클볼 / 탁구 / 바둑 / 칼림바 ☎ 문의전화 : 02)376-5040		
밸런스워킹체조	10:00~11:00	수			
미술 초급반	10:00~11:00				
미술 중급반	11:00~12:00				
꿈꾸미 문학	14:00~15:00				
뉴스포츠(체력측정)	14:00~15:00				
라인댄스	15:00~16:00				

* 출처 : 북가좌노인복지관 홈페이지(2025.08.23)

다) 인왕노인복지관

- 인왕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 내 노인의 특성에 맞는 사회교육, 건강생활 지원, 사회참여 지원 일자리사업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그림 3-11 > 인왕노인복지관 개요

	• 운영법인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6길 12-5 • 전화번호 : 02 - 733 - 9225 • 시설 규모 : 대지 814㎡ 면적 644.22㎡ 지하1층 - 지상2층 • 개관일자 : 2015.01.05 • 주요 사업 : 사회교육, 건강생활 지원, 정서생활지원, 사회참여지원 일자리사업 등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	--

* 출처 : 인왕노인복지관 블로그(2025.08.23)

- 시설은 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층에 걸쳐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음

< 표 3-13 > 인왕노인복지관 시설현황

구분	면적(㎡)	주요 시설
지하 1층	173.71	사무실, 창고
1층	268.43	경로식당, 교육실1, 사랑방
2층	202.08	강당, 교육실2
기타	-	외부 휴게시설, 주차장(3대)

* 출처 : 인왕노인복지관 블로그(2025.08.23)

- 인왕노인복지관은 교양·평생교육, 건강·여가 프로그램, 디지털 교육, 무료 급식 등 다양한 영역의 노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 그림 3-12 > 인왕노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건강증진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요일	시간	장소	정원	수강료 (6개월)	강사명	개강일
라인댄스	월	11:00~12:00	강당	25	18,000원	김광희	7월 7일
맷돌체조A	화	13:00~14:00	강당	25	18,000원	윤경숙	7월 1일
맷돌체조B	화	14:00~15:00	강당	25	18,000원		7월 1일
웰빙댄스	수	11:00~12:00	강당	22	18,000원	김광희	7월 2일
요가A	수	10:00~11:00	강당	20	18,000원	이미영	7월 2일
요가B	수	13:00~14:00	강당	20	18,000원		7월 2일
탁구교실(오전)	금	10:00~12:00	강당	20	18,000원	조동호	7월 4일
탁구교실(오후)	금	13:00~15:00	강당	20	18,000원	이근대	7월 4일
기체조	수	14:00~16:00	강당	20	무료	이아정	4~11월 진행/추가접수 가능
밸런스워킹	목	11:00~12:00	강당	25	무료	구명희	4~11월 진행/대기접수 가능
 취미여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요일	시간	장소	정원	수강료 (6개월)	강사명	개강일
우쿨렐레	수	13:00~14:30	일자리작업장	14	18,000원	정명호	7월 2일
기타	수	14:30~16:00	일자리작업장	14	18,000원		7월 2일
노래교실	목	10:00~11:00	강당	50	18,000원	최재선	7월 3일
수묵화	화	10:00~12:00	일자리작업장	10	18,000원	최조영	7월 1일
한글서예	목	10:00~12:00	일자리작업장	10	18,000원	구희자	7월 3일
색연필드로잉	금	10:00~12:00	일자리작업장	14	18,000원	이정숙	7월 4일
 교양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요일	시간	장소	정원	수강료 (6개월)	강사명	개강일
팝송영어	월	10:30~12:00	일자리작업장	18	18,000원	임혜경	7월 7일
한문	수	10:00~11:30	일자리작업장	18	18,000원	박미자	7월 2일
 자율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요일	시간	장소	정원	수강료	비고	
자율탁구	목	15:00~17:30	강당	30	무료	별도 신청 필요	
자율 노래교실	목	09:00~10:00	강당	25	무료	별도 신청 없이 이용가능	

* 출처 : 인왕노인복지관 홈페이지(2025.08.23)

4) 경로당

- 서대문구에는 총 120개의 경로당이 운영 중이며, 이는 지역 노인들의 사회적 교류 공간이자 여가·복지서비스 제공의 장으로 기능함. 경로당에서는 건강체조, 레크리에이션,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지역 사회복지사가 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선정·운영함
- 경로당의 설치 주체를 보면 70%가 사립이며 30%는 구립으로 운영되고 있음. 서대문구는 설치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연간 최소 840만 원에서 최대 15.6백만 원의 보조금을 각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음

〈 표 3-14 〉 서대문구 경로당 시설 운영기준

구분	상세 내용
시설의 규모	이용정원 20명 이상
시설기준	화장실 1, 거실 또는 휴게실 1, 전기시설 구비
설비 기준	거실 또는 휴게실이 20제곱미터 이상
이용대상	65세이상 노인으로 관할 동 거주주민 (사립경로당은 해당 공동주택 단지 입주민)

* 출처 : 서대문구청

가) 경로당 시설 연식 분포

- 서대문구 경로당은 전체의 56%가 준공 후 21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인 것으로 나타남
 - 연식이 21년 ~ 30년인 경로당이 29%(35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31년 이상 경과된 초장기 노후 시설 역시 27%(32개)에 달함
 - 반면, 비교적 신규 시설인 5년 이하 경과 경로당은 13%(15개)에 불과하여, 신규 건립이나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대다수의 경로당이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단순히 기능 유지 차원을 넘어 냉난방 시설, 안전 설비, 접근성 개선 등 이용 환경 전반에 대한 재정비 계획 수립이 요구됨

〈 표 3-15 〉 서대문구 경로당 노후도 현황

구분	경로당 수	비중
5년 이하	15	13%
6년 ~ 10년	17	14%
11년 ~20년	21	18%
21년 ~30년	35	29%
31년 이상	32	27%

* 출처 : 서대문구청 내부 자료

나) 경로당 운영 규모 및 회원 성별 현황

- 서대문구 경로당은 약 4,091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으며, 소규모 운영과 성별 불균형이 주요 특징으로 나타남
- 경로당 120개소 중 회원 수가 30명 이하인 소규모 경로당이 51%(61개소)로 과반을 넘음. 특히 21명 ~ 30명 구간이 31%(37개소)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며, 20명 이하인 경로당도 20%(24개소)에 달하는 등 소수 인원 중심의 운영 형태가 주를 이룸
 - 다만, 경로당에 배정되는 예산은 경로당의 회원 수 및 시설 규모와 비례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며, 지원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가 필요해 보임
- 경로당의 전체 회원 중 여성 회원이 72%를 차지하며, 남성 회원은 28%에 불과해 경로당 이용에 있어 심각한 성별 편중 현상을 보임. 이는 남성 노인의 경로당 이용을 유도하는 환경 및 프로그램이 부족함을 시사함

〈 표 3-16 〉 서대문구 경로당 별 운영 규모

구분	경로당 수	비중
50명 초과	14	12%
41명 ~ 50명	20	17%
31명 ~ 40명	25	21%
21명 ~ 30명	37	31%
20명 이하	24	20%

* 출처 : 서대문구청

5) 노인교실

- 노인교실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들의 사회 참여, 취미 활동, 건강 증진 등을 위해 운영됨
- 서대문구에는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 부설 노인교실, 홍제노인교실, 아현 노인교실, 연희노인교실 등 총 9개 노인교실이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각 교실은 어학, 정보화교육, 취미활동, 건강체조, 치매예방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
 - 서대문구 노인교실은 60세 이상 노인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어학, 디지털 교육, 건강체조, 치매예방교실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 이를 통해, 지역 내 노인들의 복지와 자기계발, 사회참여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음

〈 표 3-17 〉 서대문구 노인교실 현황

시설명	주소	이용정원	비고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부설 노인교실	통일로484 신지식산업센터 2층 (홍은동)	90	2층 소재
홍제노인교실	통일로40길 18 (홍제동)	80	홍제동성당 內
아현노인교실	신촌로 293 (북아현동)	150	아현감리교회 內
바오로시니어 노인대학	연희로 64-14 (연희동)	120	연희동성당 內
연희노인교실	연희로10길 17-6 (연희동)	100	연희교회 內
아현동성당 노인대학	북아현로4나길 17 (북아현동)	70	아현동성당 內
서대문성당성심회 노인교실	통일로9길 11 (냉천동)	100	서대문성당 內
신현실버대학	이화여대8길 28 (대현동)	100	신현교회 內
살림경로대학	연희로32길 19 (연희동)	200	원천교회 內

* 출처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2025.08.23)

6) 데이케어센터

- 서대문구 내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시설)는 총 19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이 시설들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을 낮 시간 동안 보호하며 식사, 목욕, 운동,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등 필수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재가 복지 시설임
- 모든 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기관이며, 이를 통해 운영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센터들은 기본적인 돌봄 외에도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

가) 주요 서비스 및 운영 특징

- 서대문구 데이케어센터는 다양한 운영주체와 규모로 이루어져 있음. 사회 복지법인, 복지재단, 협동조합, 개인 운영 등 다양한 주체가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각 시설의 서비스 방향과 역량에 차이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임

- 데이케어센터는 어르신들의 신체적, 인지적 기능 유지 및 향상에 중점을 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함

〈 표 3-18 〉 서대문구 데이케어센터 주요 프로그램

구분	특징
인지기능 향상	치매 예방 프로그램, 두뇌 훈련 등
신체 기능 지원	운동 보조, 물리치료 등 재활 활동
생활 지원	식사 및 간식 제공, 목욕 서비스
이용편의 증진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차량 이동 지원

* 출처 : 서대문구청

나) 시설 규모 및 이용 현황

- 서대문구 데이케어센터의 총 수용 규모는 약 500명 내외이며, 시설당 이용 정원은 최소 17명에서 최대 45명까지 분포되어 있다. 시설 규모가 소규모에 집중된 경향을 보임

〈 표 3-19 〉 서대문구 데이케어센터 주요 프로그램

구분	이용자 수	특징	시설 예시
대규모	40명 이상	많은 노인을 수용, 프로그램 전문화 용이	더봄데이케어센터, 미소데이케어 등
중규모	25 ~ 39명	지역사회 거점 역할 수행에 적합	구립연희안산데이케어센터, 홍제천데이케어센터 등
소규모	24명 이하	개별 맞춤형 돌봄 및 가정적 분위기 조성 용이	효림데이케어센터, 홍은데이케어센터 등

* 출처 : 서대문구청

7) 노인의료복지시설

- 서대문구 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현재 총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주된 역할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의료 및 생활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해당 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요양·간호 중심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현재 서대문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총 수용 규모는 약 297명 수준임. 대표적인 시설로는 서대문노인복지관요양센터, 홍은노인요양시설, 구립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 중앙소규모요양시설 등이 있으며, 시설별 규모는 편차가 큼

〈 표 3-20 〉 서대문구 주요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구분	이용자 수	특징	시설 예시
대규모	40명 이상	시설 집중도가 높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 가능	구립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 연희시니어스
중규모	20 ~ 39명	일반적인 요양시설 규모	효드림요양원, 서대문노인복지관요양센터
소규모	19명 이하	가정적인 분위기 조성에 용이, 접근성 높음	홍은노인요양시설, 연궁너싱홈

* 출처 : 서대문구청

나. 서대문구 내 그 외 지역자원

- 서대문구는 교육기관, 문화·체육시설, 공원과 종교시설, 도서관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고르게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사회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됨. 이러한 자원들을 복지관 중심의 노인정책과 연계한다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학습·문화·건강·교류를 균형 있게 누릴 수 있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음

1) 교육기관 자원 현황(대학 및 평생교육시설)

- 서대문구에는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를 비롯하여 명지대학교(인문캠퍼스) 등 주요 대학이 밀집해 있어 지역의 핵심 교육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음. 이들

대학은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한 거점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지식과 문화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

- 대학 인프라는 단순한 ‘평생교육’ 자원을 넘어 ‘세대 간 교류’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핵심적인 전략적 자원임. 충남 천안시가 대학 전문가 인력풀을 통합돌봄 사례관리에 활용한 것처럼, 서대문구는 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노인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학생 봉사단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간 연결고리를 형성할 수 있음
- 이처럼 서대문구의 대학은 단순한 학습기관이 아닌, 정책의 전문성을 뒷받침하고 세대통합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거버넌스 파트너로서 재정의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 내 공원, 문화센터, 도서관 등 문화공간 또한 노인들의 여가 활동과 사회적 교류를 위한 중요한 장소가 될 수 있음

〈 표 3-21 〉 서대문구 내 대학교 현황

기관 명	위치	주요 특징
연세대학교	신촌동	의료·보건·사회복지 분야 전문인력 보유
이화여자대학교	대현동	평생교육원, 여성학 전문 프로그램 운영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남가좌동	인문학·사회과학 분야 강점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충정로동	관광·호텔경영학과 등 서비스 분야
추계예술대학교	북아현동	음악·무용·연극 등 문화예술 전문
감리교신학대학교	냉천동	사회복지·상담 분야 전문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홍제동	건강관리·간호 전문인력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홍제동	디지털 콘텐츠·문화예술
명지전문대학교	홍은동	실용 기술교육 중심

2) 문화·체육 시설 자원

- 서대문구는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종합 문화·체육 거점 시설과 다양한 공연장을 보유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서대문문화체육회관(충현동), 북아현문화체육센터, 대학 부설 공연장 등이 지역사회 여가와 문화 향유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음
- 이들 시설은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공연장 등 복합적 기능을 제공하여 노년층의 체력 증진과 문화 참여 확대에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됨

< 표 3-22 > 서대문구 내 문화 체육시설 현황

기관 명	위치	주요 특징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충현동	589석 규모의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 체육관 주민 체력증진 및 문화생활 종합 지원 가능
북아현문화체육센터	북아현동	200석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생활체육 공간 소규모 공연·영화·강연을 위한 북아현아트홀 보유
ECC 삼성홀(이화여대)	대현동	702석 규모의 대학 내 공연장으로 학술·공연·문화행사 개최 가능
금호아트홀연세(연세대)	신촌동	전문 음악 공연장으로 클래식 공연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가능
연희예술극장	연희동	연극·무용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무대로 활용할 수 있는 민간 공연장

* 출처: 서대문구청 홈페이지(2025.08.23)

3) 공원시설 자원

- 서대문구는 도심 속에서도 풍부한 녹지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안산도시자연공원과 홍제천이 있음
 - 안산도시자연공원은 서대문구 중심에 위치한 해발 295m의 산 일대를 아우르는 대규모 공원으로, 울창한 숲과 순환형 등산로를 갖추어 도심 속 휴양지 역할을 수행함
 - 특히 총 7km에 달하는 무장애 안산자락길이 조성되어 있어, 휠체어·유모차 이용자도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전국적인 모범 숲길로 평가됨
 - 산책로 중간에는 전망데크와 쉼터가 마련되어 있으며, 독립문공원·봉수대 등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되어 교육·문화적 의미도 함께 제공함
- 홍제천은 안산에서 발원해 구 남부를 동서로 관통하는 도시 하천으로, 산책로와

분수대, 소규모 운동시설, 벤치 등이 조성되어 주민들의 산책·운동·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 이외에도 불광천 지류, 근린공원, 동네 쉼터 등 소규모 공원시설이 곳곳에 분포하여 노년층에게 가까운 생활권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있음

〈 표 3-23 〉 서대문구 주요 공원 및 자연시설 현황

기관 명	위치/규모	주요 특징
안산도시자연공원	서대문구 중심 해발 295m	울창한 숲, 순환형 등산로, 전망데크·쉼터, 역사유적지 연계 (독립문공원, 봉수대)
안산자락길	총 길이 약 7km, 폭 1.5m 목재데크	무장애 산책로(휠체어·유모차 가능), 남녀노소 모두 이용 가능한 순환형 숲길
홍제천	안산 발원, 구 남부동서 관통	산책로, 분수대, 물레방아 조형물, 소규모 운동기구, 벤치 등 주민 여가·휴식 공간
기타 공원시설	불광천 지류, 동네 근린공원 등	소규모 산책로와 쉼터, 생활권 중심의 노인 친화형 야외 여가공간

* 출처: <https://parks.seoul.go.kr>, 서대문구청 홈페이지(2025.08.23)

4) 종교시설 자원

- 서대문구에는 교회, 성당, 사찰 등 다양한 종교시설이 분포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와 밀착하여 오랜 기간 주민들과 함께 활동해 왔음
 - 대표적으로 연희동 원천교회, 북아현동 아현감리교회, 홍제동성당, 냉천동 서대문성당, 대현동 봉원사(사찰) 등이 있음
- 종교시설은 신앙활동의 장일 뿐만 아니라, 평소 지역 어르신들이 쉽게 드나들며 교류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기능함
 - 일부 개방적인 종교시설은 예배당·강당 등을 어르신 친교공간(사랑방)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경로대학·노인교실 운영을 통해 교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 어르신에게 배움과 친목의 기회를 제공함
 - 이러한 특성으로 종교시설은 어르신들의 정신적 안정, 사회적 관계망 유지, 친목 도모에 기여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해 왔음

5) 도서관 등 공공시설

- 서대문구는 구립 도서관, 작은도서관, 동 주민센터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생활권 곳곳에 배치하여 주민들의 평생교육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서대문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은 15만 권 이상 장서를 갖춘 지역 거점 도서관으로, 전 세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해당 도서관은 열람실, 시청각실 등 학습·문화 활동 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여 지역 내 접근성을 높이고 있음
 - 특히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노년층의 사회참여와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글쓰기·독서 기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적 역할과 자아실현을 지원하고 있음

〈 표 3-24 〉 서대문구 내 주요 공공시설 현황

기관 명	위치	주요 특징
서대문구립도서관	연희동	서울시교육청 산하 도서관으로 약 20만 권의 도서 보유
이진아기념도서관	대현동	서대문 구립 도서관으로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작은도서관	동별 분포	생활밀착형 독서·문화 공간, 어르신 친화 서비스 강화 가능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동별 분포	소규모 평생교육, 동아리 활동, 커뮤니티 모임 공간 제공

* 출처: 서대문구청 홈페이지(2025.08.23)

2. 노인 관련 욕구 파악 및 분석

- 본 노인의 여가 및 사회참여 관련 욕구 분석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와 국내 선행연구 자료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가. 여가활동 영역

- 우리나라 노인 대다수는 은퇴 후 다양한 형태의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소극적·휴식형 활동에 편중되는 경향이 두드러짐.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81.3%가 TV·라디오 시청 외에 어떤 형태로든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특히 휴식 중심 활동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음. 노인 여가활동의 선호도 및 참여율을 주요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휴식활동

- 노인 여가활동 중 가장 높은 비중(51.8%)을 차지하는 분야로, 산책(37.8%)이나 음악 감상 등의 가벼운 신체활동과 휴식을 통한 시간 보내기가 주류를 이룸. 다음으로는 가족 및 친지방문과 같은 그 외 사회활동이 11.7%, 목욕, 사우나, 낮잠 등의 기타 휴식활동이 10.6% 순으로 높았음
- 일상적인 걷기 운동이나 가벼운 산책이 많은 노인들에게 주요 여가 활동이 되고 있으며, 건강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가벼운 신체활동에 대한 욕구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고령 노인의 경우 이마저도 어려울 수 있어, 신체적 건강 제약이 여가활동 참여를 가로막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됨

2) 취미 및 오락활동

- 전체 노인의 절반가량(49.8%)이 취미생활이나 오락 활동을 즐기고 있다고 응답함. 여기에는 화초 가꾸기, 등산이나 낚시, 바둑·장기 같은 전통놀이, 독서와 같은 활동이 포함됨

- 남성 노인은 카드놀이, 장기 등 오락활동이나 등산 등의 취미활동 참여율이 높고, 여성 노인은 이러한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를 보임

3) 문화예술 활동

- 관람형 문화예술 활동 참여율은 약 2%, 직접 참여형 문화예술 활동은 15% 내외로 나타남. 특히, 직접 참여형 문화예술 활동이 2020년 대비 10% 가량 상승함. 그러나, 관람형 활동 참여율은 3.5%가량에서 2%로 감소함
- 여성 노인이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는데(여성 4.1%, 남성 1.8%), 이는 노래교실, 미술교실 등 문화센터나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 대한 여성 노인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활발함을 시사함.
- 악기연주, 미술활동 등 참여형 문화예술 활동은 75~84세 구간의 노인층에서 가장 활발하나, 영화관람 등의 관람형 활동은 연령대가 어릴수록 높은 비율을 보임

4) 신체활동

- 적극적인 운동이나 스포츠 참여는 전체 노인의 9.1% 수준으로 비교적 저조하지만, 2020년 대비 1% 상승하였음. 이를 통해, 건강에 대한 노인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을 추정할 수 있으며, 각 지역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웃음치료, 요가·명상, 체조 교실 등 건강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함에 따라, 이에 대한 참여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연령이 낮을수록 운동 참여율이 높으며(65~69세 12.6%, 85세 이상 2.5%), 남자 노인이 여성 노인보다 다소 높은 참여율을 보임(남성 11.2%, 여성 7.5%)
- 위 내용과 같이 고령일수록 관절질환 등 건강 문제로 인한 신체활동의 제약이 커져 적극적인 운동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에 있어 경제적 부담과 건강 문제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이는 특히 신체활동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임(예: 거동 불편, 만성질환 등으로 운동을 못하거나 비용 부담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나. 사회참여 영역

1) 교육 및 학습활동

- 전체 노인의 13.3%가 교육 및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월평균 참여 횟수는 5.3회, 월평균 참여 시간은 7.4시간으로 나타남. 참여자의 다수(57.6%)는 월 6시간 미만 활동에 그치고 있어, 비교적 단기간·저강도의 학습 형태가 일반적임
- 여성 노인(15.3%)의 참여율이 남성(10.8%)보다 높으며, 참여 횟수와 시간 역시 여성에서 더 많음. 연령별로는 70대의 참여 횟수가 가장 높고, 75~79세 구간은 참여 시간이 가장 긴 특성을 보임
- 교육·학습 내용별 참여를 보면, 스포츠 교육(37.3%)이 가장 높고, 이어서 건강·노화 이해 교육(30.5%), 문화예술 교육(26.8%), 정보화 교육(11.7%), 복지정책 교육(8.5%), 경제교육(7.0%) 순으로 분포함. 이를 통해, 여성은 스포츠·문화예술 중심, 남성은 정보화·직업능력 향상·경제교육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연령별로는 고연령층일수록 건강·노화 이해, 문화예술 교육 비율이 높고, 저연령층은 다양한 분야에 분산 참여하는 경향을 보임
- 교육·학습 실시 기관은 시·군·구/읍·면·동(29.8%), 노인복지관(28.1%), 매체 활용(26.7%), 경로당(21.0%) 순으로 나타남. 남성은 매체 활용(36.8%) 비율이 가장 높고, 여성은 노인복지관·경로당 참여가 두드러짐. 연령이 높을수록 경로당 활용도가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온라인·행정기관 연계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 자원봉사

- 전체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5% 수준으로 매우 낮음. 참여자의 월평균 횟수는 2.2회, 평균 시간은 4.6시간이며, 74.9%가 월 6시간 미만의 단기·저빈도 활동에 그침
- 여성 노인의 참여율(2.7%)이 남성(2.2%)보다 높으며, 참여 횟수도 여성에서

더 많음. 반면 참여 시간은 남성(4.8시간)이 여성(4.4시간)보다 길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임

- 연령대별로는 85~89세 노인층에서 참여 강도(3.4회, 11.8시간)가 가장 높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참여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활동 분야는 사회복지(56.2%)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그 외에 환경보호(17.5%), 교통질서(13.2%), 문화체육(9.0%) 순으로 나타남. 남성은 교육활동 비중(4.7%)이, 여성은 보건의료 비중(3.1%)이 상대적으로 높음
- 봉사 형태는 특별한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노력봉사(88.9%)가 압도적이며, 준전문봉사(8.1%), 전문봉사(3.0%)는 소수에 그침. 특히 여성은 단순봉사 비중이 높고, 남성은 전문자원봉사 비율(5.5%)이 여성(1.4%)보다 높음
- 연계 기관은 지자체·자원봉사센터(29.9%)와 종교기관(26.8%)이 주축이며, 복지기관(11.0%), 경로당(10.6%), 민간·비영리단체(9.3%)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은 종교기관 연계를 통한 참여 비율이 높음(47.4%)

3) 사회단체 활동 (동호회, 친목단체 등)

- 동호회 활동 참여율은 6.6% 수준으로 낮음. 참여 빈도는 월 1회가 가장 높으며(41.3%), 주 1회 이상 적극적 참여는 상대적으로 적음. 남성의 참여율은 여성보다 높지만, 여성은 주 1회 이상 적극적 참여에서 더 높음
- 친목단체 활동 참여율은 54.2%로 가장 높음. 참여자의 다수(70%)가 월 1회 이하의 간헐적 활동에 머무름. 전체 참여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지만, 여성 노인이 적극적 참여(주 1회 이상)에서 더 활발
- 정치사회단체 활동 참여율은 1.3%로 매우 낮음. 참여자의 다수(61.1%)가 월 1회 미만으로 활동. 전체 참여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지만, 여성 노인이 주 1회 이상 적극 참여율에서 남성보다 높음

4) 종교단체 활동

- 종교 현황을 보면, 노인의 60.2%는 종교가 없으며, 불교 18.5%, 개신교 16.3%, 천주교 4.8% 수준임
- 종교가 있는 노인 중 주 1회 이상 적극적 종교활동 참여율은 41.9%로 높게 나타나며, 주 1회 참여가 가장 많은 형태(32.0%)임
-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종교를 가진 비율이 높고(여성 47.1% vs 남성 30.6%), 적극적 참여율에서도 큰 차이는 없으나 여성의 활동 기반이 더 넓음을 시사함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종교 보유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적극적 종교활동 참여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5) 향후 희망하는 활동

- 먼저, 취미활동을 향후 희망하는 비율은 그렇다 33.1%, 보통이다 28.6%, 그렇지 않다 21.4%, 전혀 그렇지 않다 11.4%, 매우 그렇다 5.5%로 취미활동을 하고 싶은 비율은 38.6%(매우 그렇다 5.5%, 그렇다 33.1%). 더 나아가, 향후 희망하는 활동의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보면 아래와 같음
- 친목활동 희망 비율은 46.2%로 전체 활동 중 가장 높음. 동부 거주, 남성, 연령이 낮은 노인, 유배우·부부가구, 고학력·고소득·취업, 기능제한 없음 집단에서 희망 수준이 높음
- 여행 및 관광활동 희망 비율은 44.6%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임. 남성, 연령이 낮은 노인, 고학력·고소득·취업, 유배우·부부가구 집단에서 희망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취미활동 희망 비율은 38.6%로 나타남. 특히 읍면 대비 동 거주, 남성, 연령이 낮은 노인, 유배우·부부가구, 고학력·고소득·취업 집단에서 희망 수준이 높음
- 종교활동 희망 비율은 28.6% 수준임. 여성, 무배우 노인, 자녀동거가구, 고학력·고소득·취업 집단에서 희망 수준이 높음. 연령별 차이는 뚜렷하지 않음

- 자원봉사 희망 비율은 12.6%로 비교적 낮음. 여성, 80세 미만, 유배우·부부가구, 고학력·고소득·취업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희망 수준이 높음
- 동호회 활동 희망 비율은 12.3%로 낮은 편임. 남성, 연령이 낮은 노인(단, 90세 이상 제외), 유배우·부부가구, 고학력·고소득·취업, 기능제한 없음 집단에서 희망 수준이 높음
- 교육 및 학습활동 희망 비율은 10.6%로 낮음. 남성, 연령이 낮은 노인(단, 90세 이상 제외), 고학력·고소득·취업, 유배우·부부가구 집단에서 희망 수준이 높음
- 정치사회활동 희망 비율은 4.7%로 전체 활동 중 가장 낮음. 남성, 연령이 낮은 노인(단, 90세 이상 제외), 유배우·부부가구, 고학력, 취업, 기능제한 없음 집단에서 희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

3. 지역자원과 노인 욕구 간 연계 가능성 분석

가. 노인 욕구 카테고리

- 2023년 노인실태조사 및 선행연구를 종합한 결과, 서대문구 노인의 여가·사회참여 욕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됨

〈 표 3-25 〉 노인 여가 및 사회참여 욕구 현황

대분류	소분류	상세 내용
여가활동 영역	휴식활동	산책·가벼운 신체활동 중심, 가장 높은 참여율(51.8%), 고령층은 거동 불편으로 제약
	취미·오락	남성은 등산·장기, 여성은 공예·문화활동 등 성별 차이 뚜렷
	문화예술	관람형 참여율은 낮으나 직접참여형 증가(여성·75~84세층 중심), 접근성(교통·비용) 문제 존재
	신체활동	참여율 9.1%로 낮음, 건강관심 증가세에도 비용·건강 제약으로 저소득·고령층 참여 제한
사회참여 영역	교육·학습	스포츠·건강·문화 중심, 저연령층은 정보화·경제교육 수요 확대
	자원봉사	참여율 2.5%로 매우 낮고 단순노력봉사 편중, 전문역량 활용 기회 부족
	단체활동	동호회·친목단체 중심(54.2%), 참여는 간헐적, 정례화 및 남성 친화 모임 필요
	종교활동	종교보유 40%, 주 1회 이상 참여 41.9%, 정신적 안정에 기여하나 고령층일수록 참여 저하
그 외 잠재적·미충족 영역	체험·여행	현 지역자원 연계 부족, 무장애 관광코스·지역테마여행 개발 필요
	자기계발	디지털 역량·생애재무 교육 등 새로운 학습 수요 확대
	공익참여	자원봉사 희망 12.6%, 전문·사회서비스형 봉사 체계 필요
	사회참여 심화	정치·사회활동 수요(4.7%) 존재, 주로 젊은 노인·고학력층 중심

나. 서대문구 내 지역자원 카테고리

- 서대문구는 다양한 복지·문화·교육·자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시설 노후화와 접근성 문제로 활용도에 한계가 있음

< 표 3-26 > 서대문구 노인 관련 지역자원 현황

구분	주요 자원	규모 및 특이사항
복지·돌봄 인프라	노인종합복지관(1), 구립복지관(3), 노인교실 (9), 경로당(120), 데이케어센터(19), 노인의료복지시설(11)	경로당 56% 노후, 의료·돌봄 정원 한계
일자리· 사회참여	서대문시니어클럽, 8개 사업장	시장형·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최근 3년간 사회서비스형 3배 성장
교육·문화· 체육	연세·이화·명지 등 대학교, 도서관·이진아기념도서관, 문화체육회관, 아트홀	평생교육·공연장 자원 풍부하나 노인 접근성 낮음
자연·휴식 공간	안산도시자연공원, 무장애 자락길(7km), 홍제천·근린공원	도심 속 녹지, 무장애 인프라 강점
종교·커뮤니티	교회·성당·사찰, 주민센터·작은도서관	경로대학·노인교실 운영, 친목·정서적 기반

다. 노인 욕구 - 지역자원 매트릭스 분석

- 노인 욕구와 지역자원의 적합성을 교차 검토한 결과, 일부 영역은 자원이 충분하나 특정 분야에서는 접근성·프로그램 다양성의 한계가 확인됨. 아래 매트릭스는 향후 정책 보완과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표 3-27 〉 서대문구 노인 욕구-지역자원 매트릭스

노인 욕구	관련 지역자원	연계 적합성	부족/개선 과제
휴식·산책	공원·자락길·경로당	충분	경로당 노후화 개선 필요
취미·오락	복지관·노인교실·도서관	보통	성별·연령별 맞춤형 부족
문화예술	대학·공연장·예술극장	낮음	접근성·참여비용 문제
신체활동	문화체육회관·복지관	보통	저비용 운동·재활 서비스 필요
교육·학습	대학·도서관·경로당	충분	정보화·재무 교육 강화 필요
자원봉사	시니어클럽·자원봉사센터	낮음	전문자원봉사 트랙 필요
사회단체·친목	경로당·종교시설·주민센터	충분	프로그램 정례화·남성 친화 프로그램 필요
종교활동	종교시설	충분	비신자 개방성 확대 필요
여행·관광	공원·문화시설·민간기관	부족	무장애 관광·테마여행 연계 필요

라. 종합 정책 이슈 및 개선 방향

○ 경로당·생활거점 재정비

- 서대문구 전체 경로당의 56%가 20년 이상 된 노후 시설로 파악됨. 단순 기능 유지 차원을 넘어 냉난방, 안전 설비, 접근성 개선이 필요함
- 경로당은 여전히 노인 친목·여가활동의 핵심 생활거점으로 기능하므로, ‘생활권 기반 커뮤니티 센터’로 재정비하여 단순 휴식 공간을 넘어 학습·문화·디지털 체험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참여형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 서대문구는 연세·이화 등 대학, 금호아트홀·연희예술극장 등 공연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노인의 접근성과 활용은 제한적임

- 대학·공연장과 복지관을 연계하여 시니어 합창단, 아트랩, 작품 발표회, 지역 축제 참여 등 ‘직접 참여형’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는 노인의 정서적 만족감과 지역 문화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음

○ 건강·재활형 프로그램 확대

- 노인의 신체활동 참여율은 9.1%에 불과하며, 관절질환·만성질환 등으로 적극적 운동에 제약이 큰 상황임
- 저비용 운동 교실, 찾아가는 물리치료·재활 지도, 이동지원 서비스와 결합한 재활형 프로그램을 확충함으로써 건강 유지와 기능 회복을 동시에 도모해야 함
- 특히 거동 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재활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경제 문해력 강화

- 노인의 학습 참여 중 정보화 교육은 11.7%에 불과하며, 금융사기·디지털 격차 문제는 고령층에서 심화되고 있음
- 경로당·도서관을 거점으로 ‘디지털 튜터 사업’을 추진해 키오스크·스마트폰·금융 앱 교육을 제공하고, 여기에 금융사기 예방·생애재무설계 교육을 결합해야 함
- 이를 통해 단순한 여가 차원을 넘어 노인의 자립 역량 강화와 안전망 구축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음

○ 전문·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충

- 서대문시니어클럽은 최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규모가 3배 이상 성장했으나, 여전히 공익활동형 일자리에 87%가 집중되어 있음.
- 교육, 정원 관리, 영상 제작, 디지털 교육 보조 등 전문성과 사회서비스를 결합한 일자리로 확장해야 함
- 이는 단순 소득 보전을 넘어 노인의 경력·전문성을 살린 사회 기여로 이어져 지역사회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음

○ 여행·관광 욕구 대응

- 노인의 향후 희망활동 중 여행·관광(44.6%)은 매우 높은 수준이나, 현재 지역 자원과의 연계는 미흡함
- 안산 무장애 자락길, 홍제천,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웰니스 투어 모델을 개발하고, 대학·청년 봉사단과 연계한 세대통합 동행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고령층의 체험·여행 욕구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대 간 교류 촉진을 달성할 수 있음

○ 민관협력 거버넌스 강화

- 현재 서대문구의 노인복지정책은 공공기관 중심 운영이 주를 이루며, 민간자원의 활용은 상대적으로 부족함
- 대학, 기업, 종교시설, 문화시설 등 민간자원과 공동 기획을 통해 프로그램 다양성을 확보하고, 공공자원(복지관· 경로당)과 연계하는 통합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함
- 민관 협력형 거버넌스는 단순히 재정 부담을 분담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전반의 자원 활용도를 높여 노인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

IV. 고령친화도시 우수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

1. 노인 여가지원 사례

가. 국내 - 부산시 하하센터

1) 기본 개요

- 하하센터는 Happy Aging, Healthy Aging의 약칭으로 신노년(50~70대 전후)을 대상으로 한 학습·교류·사회공헌 복합 커뮤니티 공간임
- 핵심 비전은 “생활권 내 신노년 공동체 활동을 중심으로 함께 배우고, 즐기고, 나누면서 좋은 이웃 만들기”이며, 신노년의 풍부한 경험을 지역공동체와 연결해 사회공헌활동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단순 여가시설이 아니라 라운지, 다목적실, 공유주방·공유오피스, 미디어실 등을 포함한 프로젝트형 활동 기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시민 재능기부단과 동아리 생태계를 중심으로 “배움-교류-재능나눔”의 선순환 구조를 추구함.
- 주요 기능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모임 발굴을 통해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
 - 교육, 문화, 경력 활용 등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동아리 발굴 및 활성화
 - 하하센터를 거점으로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회공헌활동의 확장과 내실화를 지원

2) 시설 현황 및 구성

- 하하센터는 현재 부산광역시 내 3개소가 운영 중이며, 모두 생활권 기반의 접근성과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한 형태로 설계됨

< 그림 4-1 > 하하센터 해운대구 재송 (1호)

	• 시설 명 : 하하센터 해운대구 재송 • 주소 :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2번길 14 • 전화번호 : 051-784-5397 • 시설 규모 : 연면적 약 374㎡, B1-4층 • 개관일자 : 2023.12.26. • 총사업비 8억 원 • 특이사항 : 주거 밀집지역 중심, 생활권 기반 접근성 높음 • 주요 시설 : 라운지, 회의실, 공유 오피스, 공유주방, 미디어실
---	--

* 출처: <https://www.busan.go.kr/15minute/space01201>(2025.10.08)

< 그림 4-2 > 하하센터 사하구 신평 (2호)

	• 시설 명 : 하하센터 사하구 신평 • 주소 : 부산 사하구 하신변영로 140, 신평역사 2층 • 전화번호 : 051-202-5602 • 시설 규모 : 약 399㎡ • 개관일자 : 2024.07.02 • 총사업비 8억 원 • 특이사항 : 도시철도 역사 내 입지로 대중교통 접근성 우수 • 주요 시설 : 라운지, 회의실, 다목적실, 음악실, 미디어실
---	--

* 출처: <https://www.busan.go.kr/15minute/space01201>(2025.10.08)

< 그림 4-3 > 하하센터 사상구 패법 (3호)

	• 시설 명 : 하하센터 사상구 패법 • 주소 :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700번길 140, 신라대학교 예음관 3층 • 전화번호 : 051-710-4391 • 시설 규모 : 505.9㎡ • 개관일자 : 2025.03.27 • 특이사항 : 대학 건물 내 위치해 간대학 연계 및 청년세대와의 교류에 유리함 • 주요 시설 : 북라운지, 다목적실, 동아리실, 음악실, 야외테라스
---	---

* 출처: [https://www.busan.go.kr/15minute/space01201\(2025.10.08\)](https://www.busan.go.kr/15minute/space01201(2025.10.08))

- 공통적으로 라운지, 다목적실, 회의실, 미디어실, 공유주방 등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을 포함하며,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지역 거점형 복합공간으로 운영됨
- 2025년 본예산에는 추가 4개소(총사업비 23억 원) 설치 예산이 반영되어, 부산 전역으로의 거점 확장이 추진되고 있음
- 재원은 부산시 일반회계(15분 도시 사업)와 구비 일부 매칭 구조로 조성되었으며, 운영비는 시비·구비 외에도 민관협력(대학·기업·단체) 및 시민 재능기부를 통해 보완되고 있음

3) 운영주체 및 거버넌스

- 하하센터의 총괄 운영은 부산광역시 도시혁신균형실 15분도시기획과가 담당하며, 브랜드 관리·거점 전개·재능기부단 운영을 총괄함
- 현장 운영은 각 구청과의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하며, 필요 시 대학·민간기관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함
- 거버넌스는 시민 재능기부단과 동아리 네트워크 결합형 구조로, 강의·멘토링·코칭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이 이루어지는 점이 특징임

○ 운영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순환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

- 기획 단계: 연초 연간 프로그램 기획 및 협의
- 홍보 단계: 홈페이지, 구청 채널, SNS를 통한 모집 공지
- 운영 단계: 재능기부단 중심의 강좌 및 워크숍 운영
- 평가 단계: 참여율·만족도 조사 및 개선 과제 도출
- 환류 단계: 신규 프로그램 발굴 및 피드백 반영

4) 주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재능기부 기반 프로그램

- 시민 강사 및 동아리 중심으로 미술, 음악, 요리, 글쓰기, 디지털 기초교육, 건강관리 등 다양한 무료 강좌를 운영함
- 정기 강좌 외에도 일회성 특강,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 등으로 확장하여 사회공헌적 성격을 강화함

○ 세대 통합 및 교류 프로그램

- 청년과 노인이 함께 참여하는 디지털 교육, 세대 공감 문화예술제, 대학 연계 공동 프로젝트 등을 운영함
- 특히 사상구 패범 센터에서는 대학생 동아리와 신노년층이 함께 공연·전시를 진행하는 등 민-학 협력형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고 있음

○ 취미·여가 활동 프로그램

- 합창단, 밴드, 미술, 요가, 댄스 등 생활형 여가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하며, 공유주방을 활용한 요리 교실, 공유오피스를 활용한 창작·글쓰기 모임 등 공간 맞춤형 활동이 활성화됨

○ 사회공헌 프로그램

- 재능기부단을 중심으로 지역 아동 멘토링, 환경 캠페인, 마을 미화 활동 등 다양한 봉사형 프로그램을 운영함
- 지역사회 문제 해결 중심의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 운영 성과(2025 상반기 기준)

- 총 45회 프로그램, 누적 참여자 425명
- 참여자의 재참여율이 높고, 다수 참여자가 동아리형 지속 활동으로 전환되어 자생적 커뮤니티 기반이 형성됨

< 그림 4-4 > 치매예방을 위한 블록놀이 프로그램



* 출처: <https://blog.naver.com/cooolbusan/223506365603>(2025.10.08)

5) 시사점

○ 입지 전략의 유효성

- 역세권(신평역)과 대학 입지(신라대)는 접근성과 세대 융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모델임
- 생활권 기반 접근성과 학문·청년 자원을 결합한 복합형 거점 모델로 도시형 고령친화 거점 조성의 모범사례로 평가됨

○ 운영 생태계와 시민 주도성 강화

- 하하센터는 재능기부-동아리-사회공헌으로 이어지는 순환형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행정 주도의 일방향 서비스를 탈피함
- 주민이 직접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시민 자율성과 참여 기반의 지속가능한 운영 생태계를 구현함

○ 성과 관리 및 데이터화 필요

- 현재는 프로그램 횟수·참여자 수 중심의 단순 통계 관리에 머물러 있으므로, 재참여율·만족도·사회적 파급효과 등 정성적 성과 지표 도입이 필요함
-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 확산과 예산의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음

○ 민·학·산 협력의 확장 가능성

- 대학, 기업, 지자체가 연계된 다층적 운영이 가능함을 보여주며, 사상구 괘법 사례는 청년-신노년 공동 프로젝트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함

○ 지역사회 파급효과

- 신노년층의 사회참여 확대, 고립감 해소, 지역 공동체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복지·문화 기능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대 간 교류 촉진에도 간접적 효과를 창출함
- 향후 도심형 자치구(예: 서대문구)에서도 벤치마킹 가능한 도시형 신노년 커뮤니티 모델로 평가됨

나. 해외 - 영국 댄헤드파크

1) 기본 개요

- 댄헤드파크(Damhead Park)는 영국 맨체스터시 Charlestown/Blackley 생활권 주민을 위한 근린공원으로, 유아 놀이터, 다목적 구장(MUGA), 옥외 체력코스, 노인 전용 운동공간 등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권 커뮤니티 공간임
- 2008년 영국 최초로 노인 전용 운동공간(Older People's Play Area)을 설치한 사례로, AGE-friendly City 전략의 대표적 모범사례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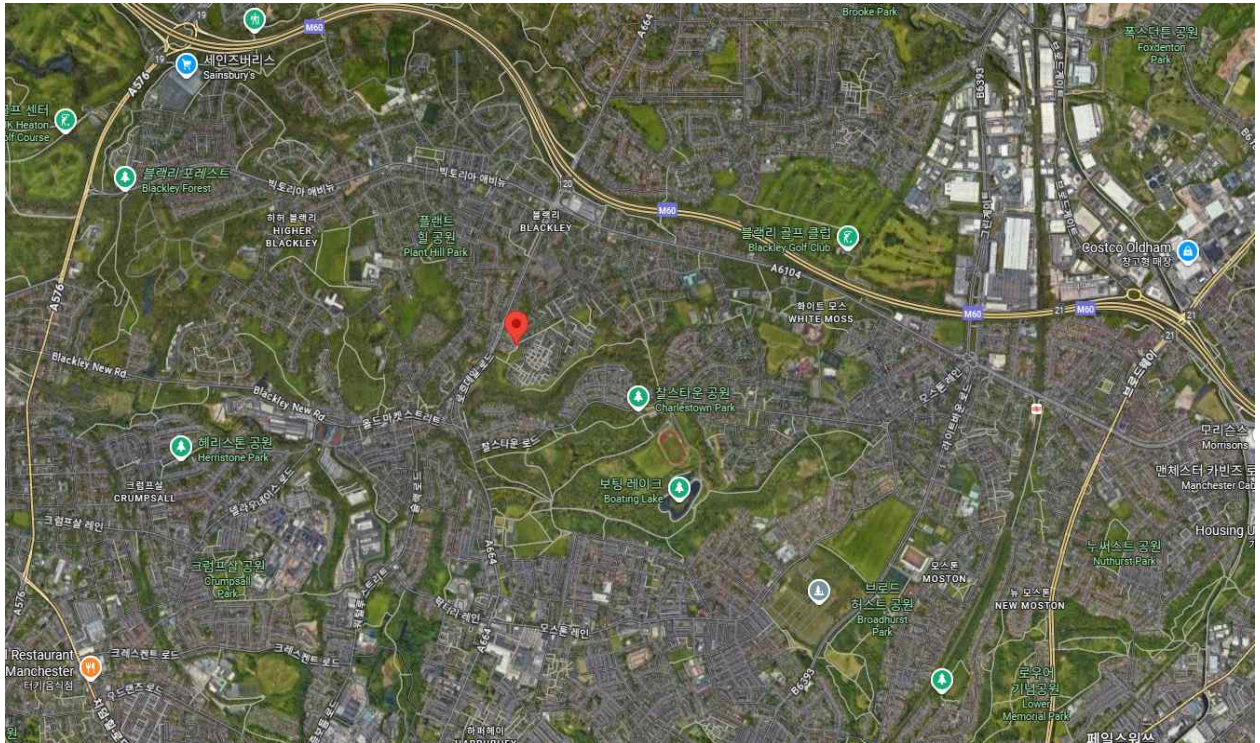
- 공원은 일출~일몰(Dawn to Dusk) 개방 원칙에 따라 운영되며, 단순 휴식공간을 넘어 신체활동·사회참여·세대통합을 지원하는 다기능적 성격을 지님
- 주민조직(Dam Head Residents Association)과 지방정부(Manchester City Council)가 공동으로 관리·운영에 참여하는 커뮤니티 거버넌스형 공공공간으로, 공공성과 주민참여성이 결합된 모델임

< 그림 4-5 > 영국담헤드파크

	• 시설 명 : 담헤드파크 • 주소 : Whitemoss Road, Manchester M9 7HD • 개관일자 : 2008. 01 • 특이사항 TfGM(Transport for Greater Manchester) 대중교통 노선 접근 가능 • 유아놀이터, MUGA, 체력코스 등 일부 구역은 반려견 출입 제한 • 주거지 중심 입지로 생활권 내 접근성이 높음
--	--

* 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Dam_Head_Park_-_geograph.org.uk_-_2264314.jpg
(2025.10.08)

< 그림 4-6 > 영국담헤드파크 위치



* 출처: 구글맵

2) 조성 과정

○ 추진 경과

- 2008.01 : 노인 전용 운동공간 설치 및 개장 (설치비 약 £15,000)
- 2008.09 : 공영주택 관리기관 Northwards Housing이 공식 재정 후원자로 기록
- 2024.05 : 시 복지 디렉터리 내 노인용 운동기구 6종, 휠체어 접근 가능 설비 등 현황 확인

○ 조성 주체 및 협력 구조

- 주민조직(Dam Head Residents Association) 주도
- 지자체 및 공영주택 관리기관 협력 지원
- 지역사회 모금 및 공공기금 병행

3) 설립 예산 및 조성비용

○ 노인 전용 운동공간 설치비: 약 £15,000

- 주민 모금, 지자체 보조, Northwards Housing 협력으로 조성

○ 공원 전체 조성비

- 총액은 별도 문서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맨체스터시 자본계획 내 공원·녹지 항목에 분산 편성된 형태로 추정됨

○ 노인 전용 운동공간 설치비: 약 £15,000

- 주민 모금, 지자체 보조, Northwards Housing 협력으로 조성

4) 시설 현황 및 구성

○ 댄헤드파크는 세대별·기능별로 구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유아부터 노년층까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다층적 생활형 운동·휴식 복합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음

○ 특히 노인 전용 운동공간과 야외 체력코스는 접근성·안전성·포용성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지역 내 고령층의 신체활동과 사회참여를 동시에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함.

〈 표 4-1 〉 댄헤드파크 시설 현황

기관 명	위치	주요 특징
유아 놀이터	만 5세 이하 대상 놀이시설	가족 단위 이용 중심
MUGA	축구·농구 등 다목적 구장	반려견 출입 제한
노인 전용 운동공간	6종 저항도 운동기구 (다리·고관절·상체 강화 중심)	휠체어 접근 가능 설계, 낙상예방 중심
야외 체력코스	옥외 운동 스테이션 코스형 배치	노년층과 일반 주민 동시 활용 가능
편의·안내 시설	현장 표지판, 이용시간·시설 안내, 바비큐 금지	접근성 및 안전 중심 운영

* 출처: <https://www.manchester.gov.uk>(2025.10.08)

5) 운영 주체 및 조직 구조

○ 관리 주체

- Manchester City Council 공원 담당 부서가 시설 유지·보수를 총괄함

○ 지역 거버넌스

- Dam Head Residents Association, Friends of Dam Head Park 등 주민조직이 공원 유지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역행사 기획에 직접 참여함.
- Northwards Housing은 초기 재정 후원자로 참여하여 인프라 조성 기반을 마련함

○ 운영 프로세스

- 일상 관리: 장비 상태 점검, 청결·배수·안전 유지
- 정기 점검: 옥외 피트니스 장비는 BS EN 16630 안전 표준에 따라 월간·연간 검사 실시
- 주민조직·자원봉사단이 행사 운영과 유지보수 보조

6) 주요 프로그램

○ 노인 전용 운동 프로그램

- 6종 장비를 활용한 저항도 신체운동 프로그램 운영
- 하체·고관절 강화, 균형훈련, 회전운동(ROM) 중심
- 낙상 예방 및 일상 동작 유지에 실질적 효과를 보임

○ 사회적 교류 프로그램

- 장비 사용법 교육과 그룹 운동을 통한 상호작용 강화
- 이웃 간 코칭 및 자발적 운동모임 활성화

○ 세대통합 프로그램

- 어린이놀이터·체력코스과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가족 단위 이용 활성화
- 청소년과 노인의 교류 행사, 지역축제형 프로그램 진행

○ 건강·복지 연계 프로그램

- 지역 보건기관과 연계한 낙상예방 교실, 균형훈련 워크숍 운영
- 물리치료사·의료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기 교육 운영

○ 주민주도 행사 및 캠페인

- 주민조직 주도로 걷기모임, 환경정화, 마을 축제 개최
- 노인 운동공간이 지역 커뮤니티의 활동 거점으로 기능

< 그림 4-7 > 영국 맨체드파크에서 여가생활을 즐기는 노인층



* 출처: <https://www.manchestereveningnews.co.uk/news/local-news/youre-never-too-old-to-have-fun-941783>

7) 시사점

○ 선도성

- 영국 최초의 노인 전용 운동공간으로, AGE-friendly 도시정책의 기념비적 사례로 평가됨
- 이후 타 도시의 노인친화적 공원 조성에 벤치마크 모델로 활용됨

○ 건강·사회적 효과

- 생활권 내 저항도 운동과 사교활동의 결합을 통해 노인 건강 유지와 고립감 완화에 기여함
- 단순 체력 증진을 넘어 공동체 강화와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됨

○ 운영·관리적 시사점

- BS EN 16630 표준 기반 정기 점검은 고령친화시설 관리의 선진 모델임
- 주민조직의 직접 참여를 통해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적 운영을 가능하게 함

○ 정책적 맥락

- 맨체스터시 고령친화 도시 전략 및 주거·복지 재개발 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됨
- 공원을 중심으로 복지·보건·주거가 결합된 생활권 통합 모델을 제시함

○ 개선 제언

- 안내 체계 강화: QR코드·픽토그램 등 정보 접근성 향상 필요
- 환경 개선: 그늘막·벤치·손잡이 등 고령친화 인프라 확충
- 프로그램 고도화: 낙상예방·균형훈련·시니어 리더 육성 프로그램 정기화
- 데이터 관리: 이용자 통계, 만족도, 건강효과 데이터 기반 관리 필요

○ 지역사회 파급효과

- 노인 신체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 공동체 결속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함
- 단순 복지공간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침
- 한국의 도심형 자치구(예: 서대문구)에서도 도심 속 고령친화 생활공간 조성 모델로서 벤치마킹 가치가 높음

2. 노인 사회참여 사례

가. 국내 - 경남 시니어 스마트시설안전매니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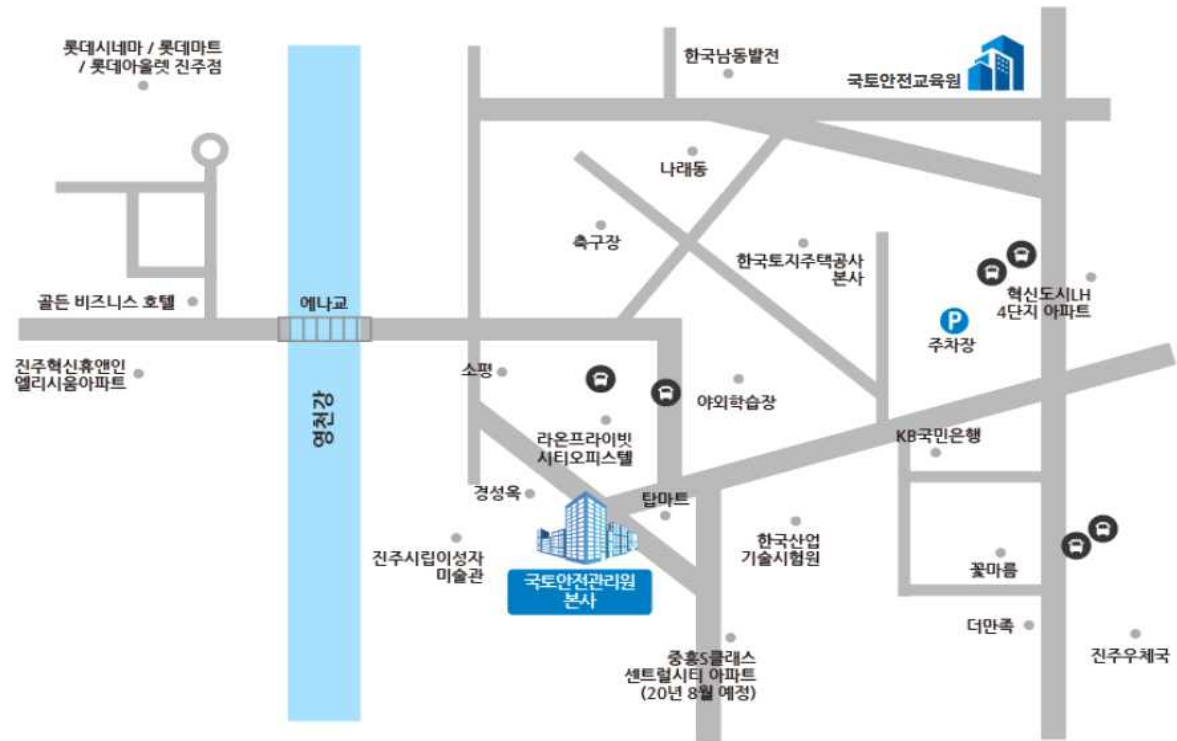
1) 기본 개요

- 시니어 스마트시설안전매니저 사업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자율안전점검 웹·앱을 활용하여 경로당,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정기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노인일자리 기반 안전관리 프로그램임
- 점검 결과는 데이터화되어 정밀점검, 보수·보강, 후속조치와 연계되며, 현장-데이터-행정이 연동되는 다층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
- 본 사업은 단순 일자리 제공을 넘어 노인의 사회참여와 지역 안전 증진을 동시에 달성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모델이며, 법정점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예방 중심의 정책사업으로 평가됨

2) 위치 및 수행 구조

- 총괄·기술지원 기관
 - 국토안전관리원(KALIS) 본사: 경남 진주시 에나로128번길 24
 - 국토안전교육원 진주교육장에서 교육·연수 운영

< 그림 4-8 > 국토안전관리원 본사 위치



* 출처: https://www.kalis.or.kr/wpge/m_124/introduce/introduce0701.do

○ 현장 수행기관

- 경남 내 진주시니어클럽, 함안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현장 운영을 담당함.

○ 거점 장점

- 국토안전관리원이 진주에 위치해 기술지원·교육·점검 연계가 신속하며,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이 용이함

3) 정책 수립 및 추진 경과

○ 시범 추진 (2021)

-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국토안전관리원이 공동으로 ‘시니어 국민생활시설 점검원’ 시범사업을 추진함.
- 스마트폰·앱 기반 자율점검 모델에서 현재의 전국 단위 사업으로 발전함

○ 중앙정부 공동 추진 (2023.10)

-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발표함
- 노인일자리 기반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 점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포함한 2027년까지 3,000명·18만 건 점검 로드맵 제시

○ 지자체 집중 지원 (2024~)

- 정부가 60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해 400명 양성·투입, 총사업비 34억 원(국비 50%, 지방비 50%) 규모로 본격 추진

○ 지자체 집중 지원 (2024~)

- 정부가 60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해 400명 양성·투입, 총사업비 34억 원(국비 50%, 지방비 50%) 규모로 본격 추진

< 표 4-2 > 스마트시설안전매니저 연간 계획

연도	인원(명)	점검 건수(건)
2024	400	24,000
2025	600	36,000
2026	800	48,000
2027	1,000	60,000

* 출처: 국토교통부. (2023). 소규모 취약시설 무상 안전점검, 60곳 지자체의 경로당을 중심으로 본격 시작 [보도자료]

4) 총괄 예산 및 참여자 급여

○ 총사업비 (2024년): 34억 원 (국비 50% + 지방비 50%)

○ 참여자 급여

- 사회서비스형 기준 월 761,040원(주휴 포함, 월 60시간 내 근무)
- 4대 보험 적용, 근무시간·수당은 지자체별 공고에 따라 일부 차이 존재

5) 경남 중심 운영 현황

○ 거점 효과

- 국토안전관리원 본사가 진주에 위치하여 교육·기술지원·점검 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짐

○ 우수사례

- 진주시니어클럽: 2024년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일자리 확산 우수모델 컨퍼런스에서 복지부장관상 수상
- 함안시니어클럽: 2024년 국토안전관리원 주관 안전점검 경진대회에서 우수 스마트 매니저 배출

< 그림 4-9 > 진주시니어클럽이 우수점검원 시상식 수상



* 출처 : https://www.news1.com/view/NISX20231205_0002546037

○ 전국 운영지표

- 2024년 기준 61개 지역, 415명 참여
- 2025년 72개 지역, 약 500명 선발 계획

6) 운영 주체 및 조직 구조

○ 정책 총괄

-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가 공동 추진하며, 지자체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노인일자리 연계를 총괄함

○ 전담 및 기술지원

- 국토안전관리원(KALIS)이 자율안전점검 웹 운영, 교육·동반점검, 결과 검증, 정밀점검 연계를 담당함

○ 일자리 체계 및 수행기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각 지자체,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등이 참여자 모집·배치·운영을 담당함

○ 데이터 관리 및 사후조치

- 점검 결과는 시설정보공유플랫폼(SFMS)에 실시간 축적됨
- 위험시설은 선별 후 정밀점검 및 보수·보강으로 연계되는 구조를 가짐

7) 운영 예산 및 프로세스

○ 재원 구조

- 국비 50% + 지방비 50% 매칭

○ 예산 산출 예시(지자체 단위)

- 참여 인원 × 월 급여(761,040원) × 운영 개월수(10~12개월)
- 4대 보험 사업주 부담금 + 교육비 + 장비비 + 운영비 포함 세부 운영비는 각 지자체 계획에서 확정됨.

○ 운영 프로세스

- 교육·양성 단계: 국토안전관리원 주관 이론·실습 교육
- 현장 점검 단계: 앱을 통한 자율점검 및 데이터 입력
- 검증·환류 단계: 정밀점검-보수-데이터 분석으로 연결
- 성과 관리 단계: 점검 실적·위험도별 조치 결과를 지자체 보고

8) 주요 프로그램

○ 표준 점검 프로그램

- 경로당, 어린이집, 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 대상 정기 점검
- 시설별 표준 체크리스트 기반 점검 후, 이상 여부를 데이터화하여 즉시 보고

○ 데이터 기반 관리

- 점검 결과는 시설정보공유플랫폼(SFMS)에 자동 입력
- 위험도 분류 후 정밀점검 및 보수·보강으로 신속 연계

○ 교육·연수 프로그램

- 국토안전관리원 및 교육원이 주관하는 기초-현장-보수교육 체계 운영
- 스마트기기 활용, 안전점검 기술, 응급대응 능력 등 실무 중심 교육

○ 동반·정밀 점검 체계

- 필요 시 국토안전관리원 전문가와 동행 점검 수행
- 정밀 점검 결과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보수·보강 조치로 연결

○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등과 협력하여 참여자 모집 및 캠페인 운영
- 지역 주민 대상 안전 교육, 시설 관리자와 협력형 훈련 병행

< 그림 4-10 > 시니어 국민생활점검원들이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 출처: https://m.blog.naver.com/kordi_seniorjob/222493544542

9) 시사점

○ 안전망 강화 효과

- 법정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시적·예방적 점검 체계를 구축함
- 지역 내 안전관리의 공공성과 지속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보임

○ 사회참여 및 일자리 확대

- 시니어가 단순 수혜자가 아닌 지역 안전의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자존감·사회적 연대 강화에 기여함
-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로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경남 지역의 선도성

- 국토안전관리원 본사가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교육·점검·사후관리 연계가 빠름
- 진주·함안의 우수사례는 전국 확산 모델로서 파급효과가 큼

○ 정책적 파급효과

- 중앙정부-지자체-시민이 협력하는 다층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현함
- 데이터 기반 시설관리와 사회적 일자리를 결합한 혁신적 복합정책 모델로 평가됨

○ 지역사회 파급효과

- 주민 생활환경의 안전성 향상, 공동체 신뢰 강화,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 도심형 자치구(예: 서대문구)에서도 적용 가능한 노인 사회참여+안전관리 융합모델로 활용 가치가 높음

나. 해외 - 미국 Americorps Seniors

1) 기본 개요

- AmeriCorps Seniors는 미국 연방정부 산하 기관인 AmeriCorps(舊 CNCS, 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가 운영하는 55세 이상 시니어 자원봉사 프로그램군의 총칭임
- 「1973년 자원봉사서비스법(DVSA: Domestic Volunteer Service Act)」을 근거로 하며, 아래의 세 가지 핵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① RSVP(Retired & Senior Volunteer Program)
 - ② FGP(Foster Grandparent Program)
 - ③ SCP(Senior Companion Program)
- AmeriCorps는 비영리단체·지방정부·대학 등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시니어 봉사활동을 조직·운영하도록 지원하며, 저소득 참여자에게는 시간당 수당을 제공하는 사회적 보상체계를 포함함
- 단순 봉사활동을 넘어 교육·돌봄·복지·지역개발 등 전 분야에 걸친 제도적 사회참여 체계로, 노년층의 건강 유지와 사회적 고립 해소에 기여하는 대표적 공공정책 모델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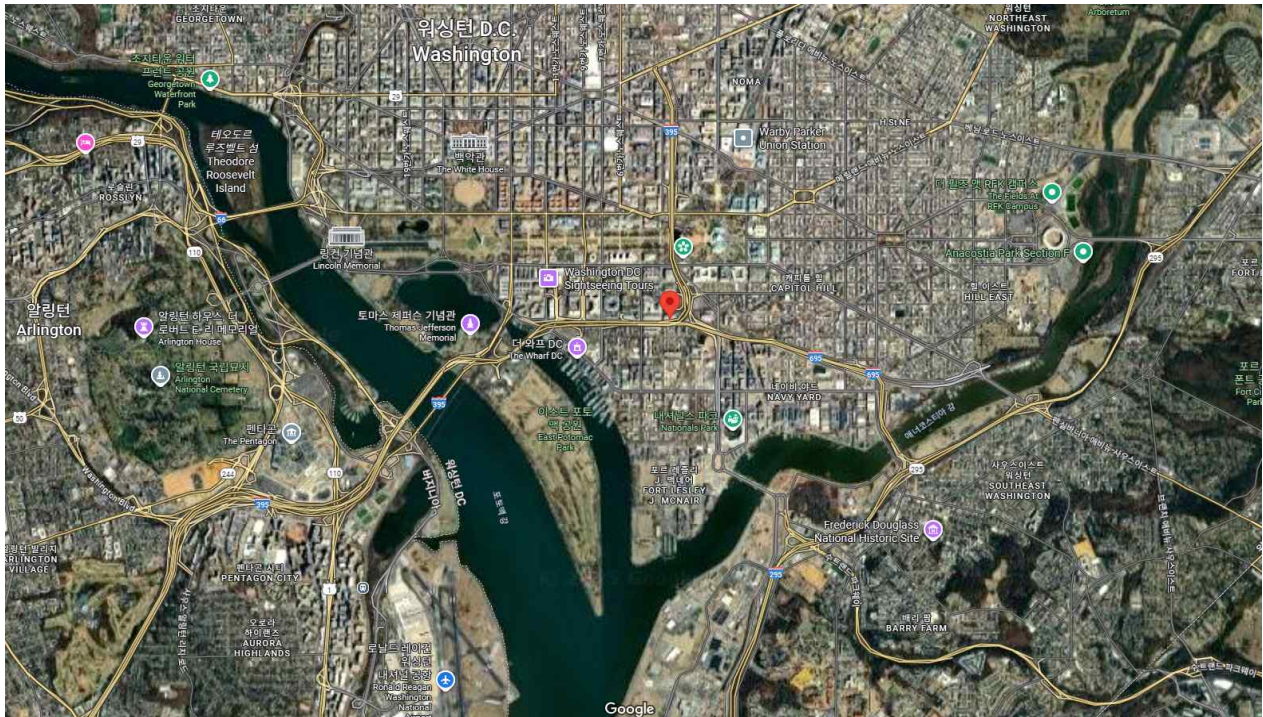
2) 위치 및 운영 체계

- 본부
 - 주소: 250 E Street SW, Washington, DC 20525
 - 대표전화: 1-800-942-2677
- 지역 사무소
 - MidAtlantic, Midwest, Mountain, NorthCentral, Northeast, SouthCentral, Southeast, West 등
 - 8개 권역별 사무소에서 보조금 관리 및 현장 지원을 수행함

○ 주(州) 서비스 커미션 체계

- AmeriCorps Seniors의 보조금은 본부에서 Grantee(수행기관)에 직접 교부되며, 각 주의 State Service Commission은 직접 집행기관은 아니지만 주 단위의 인프라 · 파트너십 · 모니터링 기능을 담당함

< 그림 4-11 > Americorps Seniors 위치 사진



* 출처:구글맵

3) 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 시범 단계 (1960~1970년대)

- FGP(1965), SCP(1968), RSVP(1969)로 시범 운영 후
- 1973년 DVSA 제정으로 세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체계에 편입

○ 제도 정비 (1993)

-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Trust Act」 제정으로 CNCS(현 AmeriCorps) 설립, 주 서비스 커미션 체계 구축 및 예산 구조 정비

○ 브랜드 개편 (2020)

- CNCS → AmeriCorps 및 AmeriCorps Seniors로 공식 브랜드 통합

○ 최근 제도 개정 (2024~2025)

- RSVP 매칭 비율을 연차 구분 없이 10% 일원화,
- FGP·SCP 수당을 시간당 4달러로 상향(법정최소시급 3달러 기준)
- FY2025 기준, 모든 주·준주·DC 포함 국가봉사투자 보고서 공개 중

4) 예산 규모 및 투자 구조

○ FY2024 전체 투자액

- AmeriCorps는 Seniors를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에 약 9.7억 달러(USD)를 투자함

○ FY2025 예산 집행 현황

- 일부 보조금 집행 지연 사례가 있었으나, 2025년 8월 OMB(미 행정관리 예산국)가 잔여 자금 집행을 재승인함

○ 수당 및 매칭 구조

- FGP/SCP: 연방 90% + 비연방(현물 포함) 10%
- RSVP: 10% 매칭(연차 구분 폐지)
- 수당형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의 연방분담금은 수당·보험·교통비 등 직접혜택 중심으로 배분됨

5)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전국적 운영망

- 50개 주, DC, 4개 준주 전역에서 Seniors 활동이 이루어지며, 주별 활동 및 투자 내역은 국가봉사보고서(National Service Report)로 공개됨

○ 규모 및 지표

- RSVP 참여자 약 100,000명 이상

- FGP/SCP는 Volunteer Service Year(VSY) 기준으로 성과 측정 (1 VSY = 1,044시간)
- 수당 지급형(FGP/SCP): 시간당 4달러, 무급형(RSVP): 비보상 봉사활동 중심

6) 운영 주체 및 조직 구조

○ 중앙조직

- AmeriCorps 본부의 Seniors Office가 규정 · 공고 · 감독 총괄
- 권역별 지역사무소가 보조금 관리 · 성과 모니터링 담당

○ 수행기관(Grantee)

- 지방정부, 대학, 비영리단체 등이 수행기관으로 참여
- Volunteer Station(실제 활동 기관)과 협력해 봉사자 배치 및 관리

○ 거버넌스 특징

- 본부-지역사무소-수행기관-Volunteer Station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관리체계
- 주 서비스 커미션은 인프라 지원 · 자원 연계 · 평가 기능 수행

7) 재원 및 성과 기준

- AmeriCorps Seniors의 재원 구조는 연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지방 및 민간이 일부 매칭하는 혼합형 모델로, 프로그램별 특성에 따라 수당형(FGP · SCP)과 무급형(RSVP)으로 구분되며, 표준화된 VSY(Volunteer Service Year) 지표를 통해 예산 효율성과 성과를 동시에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표 4-3 〉 AmeriCorps Seniors 재원 및 성과 기준

구분	재원구조	보조금 비율	비고
FGP/SCP	연방 90% + 비연방 10%	대부분 수당 중심	저소득층 수당형
RSVP	연방 90% + 비연방 10%	운영 · 관리비 중심	무급형 자원봉사
1 VSY 기준	1,044시간 × \$4 = \$4,176	연간 활동 단위	성과평가 지표로 활용

* 출처: 강은나 · 류병주, 「미국의 고령자 자원봉사 프로그램 현황과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2023년 가을호, 통권 26호, 76-87쪽

8) 주요 프로그램

○ RSVP (Retired & Senior Volunteer Program)

- 가장 규모가 큰 비수당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 교육, 건강, 환경, 재난대응, 행정지원 등 지역사회 전반에 시니어 자원을 매칭
- 광범위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 FGP (Foster Grandparent Program)

- 저소득 시니어가 아동·청소년에게 학습보조, 멘토링, 정서적 돌봄을 제공
- 학교·보육시설·복지기관과 협력하며, 활동시간당 \$4 수당 제공

< 그림 4-12 > Americorps Seniors의 RSVP 프로그램



* 출처: <https://lifescapeservices.org/services/amicorpsseniors/>

○ SCP (Senior Companion Program)

- 시니어가 고령자·장애인을 정기 방문해 생활보조·정서지지·동행 서비스 제공
- 사회적 고립 완화와 돌봄비용 절감에 실질적 효과

○ 교육·지원 체계

- 모든 참여자는 AmeriCorps 및 수행기관의 오리엔테이션과 정기교육 이수
- 교통비, 보험, 식비 등 부대비용 일부 지원으로 지속적 참여 유도

○ 커뮤니티 네트워크

- 봉사활동이 개인 차원을 넘어 학교·병원·비영리단체와의 협력형 플랫폼으로 운영
- 시니어의 경험과 역량이 지역사회 복지와 연결되는 구조를 가짐

< 그림 4-13 > 아이들을 가르치는 미국시니어봉사단



* 출처: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54044&inflow=N>

9) 시사점

○ 사회적·재정적 성과

- 연구에 따르면, FGP/SCP의 투입금 1달러당 약 3.5달러의 사회적 편익(ROI) 창출
- 자원봉사 활동이 단순한 복지비 절감이 아닌 경제적 가치 창출 구조로 기능

○ 건강·고립 완화 효과

- 참여자의 80% 이상이 건강 유지·우울감 완화·고립감 감소를 보고함
- 봉사활동이 삶의 질 향상 수단으로 작동하며, 공공의료비 절감에도 기여

○ 정책적 시사점

- RSVP 매칭 규정 단순화 및 수당 상향으로 참여기관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킴
- VSY(Volunteer Service Year) 제도는 대규모 정책평가와 자원 배분에 유용한 표준화 지표로 작동
- 연방 보조금 집행 지연·해제 사례는 정기적 예산 집행 안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시사함

○ 거버넌스 안정성

- 중앙-지역-수행기관의 다층 구조는 대규모 자원봉사체계 운영에 적합함
- 주 서비스 커미션과의 협력은 파트너십 및 자원 동원의 기반을 제공함

○ 지역사회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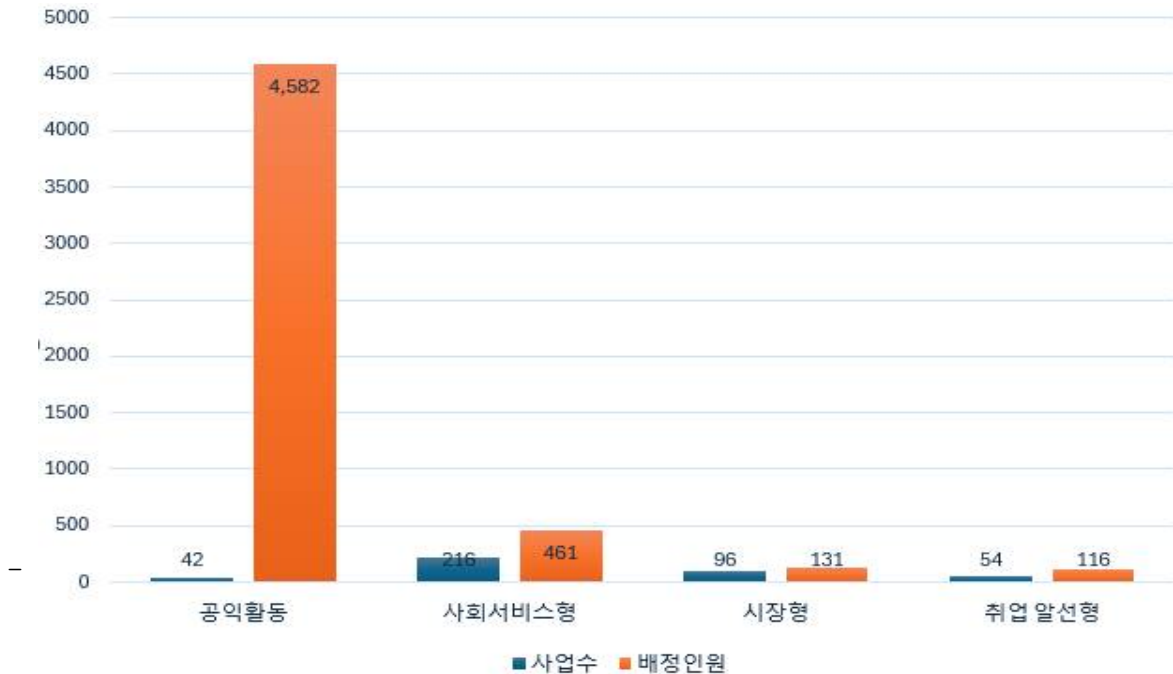
-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세대 간 교류, 아동·노인 돌봄 지원 등 다차원적 효과 창출
- 공동체 신뢰 회복, 복지비 절감,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기여
- 한국형 제도화 모델 설계 시, ‘수당+데이터+공공거버넌스’ 결합 모델로 벤치마킹 가치가 높음

V. 서대문구 적용가능 모델 및 정책 제언

1. 분석결과 종합 및 시사점 도출

- 서대문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2025년 약 6만 1천 명으로 전체의 19.4%를 차지함
 - 이는 서울시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서대문구가 고령사회 대응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음을 의미함
 - 그러나 기존 정책만으로는 변화하는 노인층의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충족하기 어려움. 이에 본 연구는 능동적 사회참여, 문화예술, 디지털 역량, 건강증진, 정서지원 등 다섯 가지 영역의 미충족 욕구를 중심으로 정책 개선 방향을 도출함
- 능동적 사회참여 욕구의 미충족
 - 서대문구 노인들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큼. 실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인원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노인이 사회에 적극 참여하고자 함을 보여줌
 - 그러나 일자리사업의 87% 이상이 공익활동형에 편중되어 있어 다채로운 직무 제공과 전문성 발휘에 제한이 있음.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이 2024년 노인일자리 중 공익활동형이 4,58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시장형·사회서비스형·취업알선형 일자리는 소수에 그침
 - 이는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지닌 노인들의 자아실현 및 사회공헌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로 지적됨

〈 그림 5-1 〉 2024년 서대문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현황



* 출처 : 서대문구 2024년 업무보고

○ 문화·여가 활동 욕구의 다양화

- 서대문구는 복지관, 경로당 등을 통해 서예, 노래교실, 정보화교육 등 전통적인 여가·교양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하고 있음
- 이를 통해 노인의 문화적 욕구 충족에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노인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가 확대됨에 비해 정책 대응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예를 들어 관람형 문화활동(공연 관람 등)에 참여하는 노인은 2% 내외에 불과하지만, 미술·공예·원예 등 직접 참여형 문화활동 선호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현재 프로그램은 전통 취미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공연·예술 관람, 창작활동 등 새로운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기회가 부족함

○ 디지털 역량 및 평생학습 수요

- 정보화 시대에 디지털 소외 문제는 노인들의 사회참여 격차로 이어지고 있음. 서대문구도 스마트폰 활용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맞춤형 ICT 교육 과정과 온라인 여가활동 지원은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활용 능력이 높은 노인은 온라인 모임, 정보탐색 등 다양한 여가에 참여하지만, 능력이 낮은 노인은 TV 시청, 산책 등 수동적 활동에 그치는 경향이 뚜렷함
- 노인의 평생학습 욕구 또한 증대되고 있으나 현재 제공되는 교양강좌는 기초 수준 위주로, 전문적이거나 심화된 학습 기회는 제한적으로 보임

○ 건강증진 및 심리사회적 지원 욕구

- 고령 노인일수록 만성질환이나 거동 불편으로 적극적 신체활동에 제약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 부담도 운동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임
- 서대문구 복지관들은 의자요가, 맞춤 스트레칭 등을 통해 신체제약 노인도 참여하도록 배려하고 있으나, 보다 접근성이 높은 생활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함
- 또한 노년기의 우울감·고립감 완화에 여가·사회참여가 효과적이거나, 독거 노인 등 취약집단 대상의 정서지원 및 교류 프로그램은 아직 충분하지 않음. 현재 경로당 특화프로그램으로 치매예방, 텃밭가꾸기 등이 시행되나, 세대 통합형 교류나 심리상담 등은 미흡한 실정임

○ 지역자원 및 거버넌스 한계

- 서대문구에는 노인종합복지관(1개), 노인복지관(3개), 경로당(120여 개) 등 다양한 노인 여가기반 시설이 존재하며, 이는 노인들의 일상생활 거점이자 커뮤니티 허브로 잠재력이 큼
- 그러나 시설 공급과 서비스 수준의 한계가 있음. 일부 시설의 노후화와 접근성 문제로 활용도가 낮고, 초고령사회 도래를 고려할 때 시설과 프로그램의 절대량이 부족해보임
- 현행 정책 추진이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 대학, 민간 문화공간, 기업 등 민간자원과의 연계가 미흡하며,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지역사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 부족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질 관리와 지속가능한 개선 사이클이 미흡한 상황으로 보임

○ 종합적으로 서대문구 노인복지정책은 양적 기반은 갖추고 있으나 질적 다양화와 혁신이 필요한 상태임

- 노인의 미충족 욕구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① 퇴직 후에도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욕구
 - ② 다채로운 문화예술과 취미를 향유하고픈 욕구
 - ③ 디지털 및 평생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욕구
 - ④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하며 정서적 지지를 받고픈 욕구
 - ⑤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세대와 소통·공헌하고픈 욕구
- 이러한 욕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의 효율적 연계와 정책적 보완이 요구됨. 향후 서대문구가 고령친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능동적 여가·사회참여 기회 확대, 디지털 격차 해소, 문화예술 참여 강화, 지속 가능한 일자리·자원봉사 모델 구축, 돌봄·건강·여가의 통합 서비스 기반 마련, 민·관 거버넌스 강화, 그리고 혁신적 프로그램 도입 등이 필요함

2. 서대문구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 모델 제안

- 위에서 도출된 미충족 욕구를 해소하고자, 해외 및 국내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서대문구에 적용 가능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모델을 제안함
 - 여기서는 아래의 3가지 모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① 신노년층을 위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
 - ② 노인 친화형 야외 여가시설
 - ③ 고령자 자원봉사 프로그램
 - 각 모델에는 시설 유형, 운영방식, 프로그램 내용, 시민참여 구조를 포함하며, 서대문구 현실에 맞게 응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가. 신노년층을 위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

1) 벤치마킹 사례

- 부산시가 최근 도입한 하하센터(HAHA Center)는 Happy Aging, Healthy Aging의 약칭으로, 활동적인 신노년층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노인 복지공간임
 - 하하센터 1호점(부산 해운대구)은 기존 재가노인복지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복합커뮤니티로 조성되었음. 내부에 어르신라운지, 프로젝트룸, 공유오피스, 키친스튜디오 등을 갖추어, 어르신들이 취미활동을 즐기고 자율적으로 모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기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이용자보다 더 활동적인 젊은 노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취미여가 활동과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임
 - 부산시는 2026년까지 이러한 하하센터를 26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활력과 사회적 존재감 회복을 지원하려 하고 있음

2) 서대문구 적용 방안

- 서대문구도 이 모델을 참고하여 ‘신중년·액티브 시니어 센터’ (가칭)를 구축할 것을 제안함

- 예를 들어 유희 공공시설이나 대학 캠퍼스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복합 여가·학습·교류 허브로 활용할 수 있음
- 1층은 카페형 라운지(동년배 및 세대간 교류공간), 2층은 동아리 및 프로젝트실(취미활동, 사회공헌 기획실), 3층은 공유오피스 및 창업지원 공간, 4층은 쿠킹·공예 등 체험형 스튜디오로 구성할 수 있음
- 이 센터는 민·관 협력으로 운영하되, 운영주체는 노인복지 분야 NGO나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고, 구청은 예산·행정 지원을 담당함
-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합창단, 그림동호회, 시니어 밴드 등의 맞춤 취미클럽, 공예품 제작, 요리교실 등의 시니어 창의활동, 어르신 멘토, 환경정화 봉사팀 조직 등 재능기부·사회공헌 프로젝트, 세대통합 토론회, 지역 현안 자문 등의 시민참여 워크숍 등을 운영할 수 있음
- 시민참여 구조는 이용 어르신들이 프로그램 기획단에 직접 참여하고, 자원 봉사자로도 활동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에서 기여자로 역할 전환을 유도할 수 있음
- 또한 근린 주민들도 일부 공간을 함께 활용하도록 개방하여 세대통합형 커뮤니티로 발전시킬 수 있음. 이러한 센터는 현재 복지관이 담아내지 못하는 액티브 시니어의 자기실현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의 노인인식 개선과 세대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노인 친화형 야외 여가시설

1) 벤치마킹 사례

- 영국 맨체스터의 댐헤드 파크(Dam Head Park)에는 세계 최초의 노인 전용 놀이터가 2008년 조성되었음
- 어르신 놀이터(Older People's Play Area)에는 상체 운동기구, 하체 근력 강화기구, 균형감각 훈련기구 등 노인을 위한 저강도 운동 설비 6종이 설치되어 있음
- 모든 기구는 “나이는 숫자일 뿐, 놀기에 늦지 않았다(Never too old to play)” 라는 슬로건 아래 설계되었고, 휠체어 이용자도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음

- 이 시설은 지역 주민협회가 독일 사례를 참고하여 제안했으며, 약 1만5천 파운드의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건립되었고. 주택공사 등에서 자금을 지원 받았음
- Age Concern 등의 노인단체는 이러한 야외 피트니스 공원이 노인의 신체·정신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면서, 지역 당국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야외 운동시설을 확대할 것을 권장하였음
- 실제로 해당 놀이터는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몇 차례라도 밖에 나와 가볍게 운동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 고립감과 우울감 해소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음
- 이후 영국 런던 하이드파크 등 여러 곳에 노인 놀이터가 확산되고, 유럽과 북미, 아시아 각국에도 유사한 시니어 운동공원 모델이 도입되고 있음

2) 서대문구 적용 방안

- 서대문구는 이미 근린공원과 산책로를 중심으로 노인용 운동기구가 다수 설치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시설 확충보다는 기존 인프라를 생활권 커뮤니티 중심으로 재활성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 영국 맨체스터의 댄헤드 파크가 노인 놀이터를 통해 단순한 시설을 지역 공동체 활동의 매개로 전환한 것처럼, 서대문구도 시설 중심에서 활동 중심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함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운영 모델을 제안함
 - 공원 운동리더제: 인근 주민 또는 시니어 자원봉사자를 ‘운동리더’로 양성하여 매주 공원별 스트레칭·밴드운동 등 저강도 신체활동을 지도
 - 마을 건강동아리 지원사업: 공원·산책로를 거점으로 하는 자율 모임에 소액 예산을 지원해 지속적인 참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
 - 정기 건강챌린지 및 산책 프로그램: 경로당-공원-복지관을 연계한 걷기 코스를 운영하여 생활권 내 순환형 건강 네트워크를 형성
- 이를 통해 노인들이 일상적으로 공원을 방문하며 신체활동·정서교류·자율모임을 병행할 수 있으며, 공원은 단순 운동시설을 넘어 지역사회 교류의 생활거점으로 기능하게 됨

- 서대문구는 인프라 확충보다는 운영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의료기관·기업·대학 등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건강측정, 안전교육, 참여보상 등의 민관협력형 운영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생활권 기반 커뮤니티형 접근은 서대문구의 도시 구조에 적합하며, 비용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고령친화 모델로 평가할 수 있음

다. 고령자 자원봉사 프로그램

1) 벤치마킹 사례

- AmeriCorps Seniors는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전국 규모의 고령자 자원봉사 플랫폼으로, 55세 이상 노인이 교육, 돌봄, 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는 제도적 네트워크임
 - 대표 프로그램은 RSVP(자원봉사 매칭), Foster Grandparents(아동 멘토링), Senior Companions(노인 돌봄)으로 구성되며, 참여자는 일정 수당과 보험을 지원받음
 - 이 체계는 노인을 사회적 약자가 아닌 ‘경험과 역량을 지닌 사회적 자산’으로 보고, 정부·비영리·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다층 거버넌스 구조를 특징으로 함

2) 서대문구 적용 방안

- 서대문구는 현재 노인일자리사업, 자원봉사센터, 복지관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연계·통합하여 서대문 시니어 봉사단(Senior Corps)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
 - 이는 일자리와 봉사의 경계를 허물고, 고령자가 지속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통합형 사회참여 경로 모델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운영 주체는 서대문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구청 노인복지과·자원봉사센터·지역 NPO·복지관·학교·주민센터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형태로 구성함

○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 세대공헌형 멘토링: 은퇴 교사, 공무원, 전문직 출신 어르신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학습 지도, 진로상담, 인성교육을 진행
- 커뮤니티 케어 봉사: 건강한 액티브 시니어를 실버 케어 파트너로 조직하여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 말벗·생활지원 등 정서적 돌봄 수행
- 전문역량 재능기부: 회계·법률·기술 등 전문경력 보유 노인을 지역 비영리·소상공인 지원기관과 매칭하여 자문·멘토링 제공
- 일자리-봉사 연계 프로젝트: 공익형 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봉사교육을 병행, 일정 참여시간을 봉사로 전환하는 인센티브 제도 운영

○ 플랫폼 운영은 온라인 매칭 시스템과 오프라인 상담창구를 병행하며, 참여자 교육-배치-활동-성과관리의 전 과정을 표준화함. 참여 노인은 역량평가에 따라 멘토형, 돌봄형, 전문자문형 등으로 분류해 단계별로 배치할 수 있음

○ 예산은 기존 노인일자리 예산 일부를 전환하고, 중앙정부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확보하며, 기업 CSR 기금을 통한 민간 협력재원을 유치함

○ “서대문 시니어 봉사단”이 정착되면, 고령자는 생애주기 전반에서 일-봉사-사회참여의 연속적 경로를 확보하게 되고, 지역사회는 인적자원을 활용해 돌봄 공백과 세대 간 단절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음

○ 궁극적으로 본 모델은 서대문구가 고령자를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자치단체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 가능한 지속가능한 고령친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3. 고령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 위에서 제안한 프로그램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서대문구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고령친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치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함
- 정책 방향을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정책 방향과 추진체계, 제도 기반, 재원 조달, 거버넌스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함

가. 단기 발전 방향

- 정책 추진 기반 조성
 - 고령친화도시 전환을 위한 태스크포스(TF)나 전담팀을 신설하고, 노인대표·전문가·공무원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함
 - 초기 단계부터 노인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당사자 중심의 기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현행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 조례」 등을 개정하여 고령친화 프로그램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고, 신규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을 확보해야함
- 니즈 파악 및 시범사업 실시
 - 정기적인 노인욕구 및 만족도 조사 체계를 구축해야함. (예: 연 1회 이상 문화여가 욕구 설문조사, 디지털 역량 진단 등) 이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근거 기반으로 설정함.
 - 아울러 앞서 제시한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시범사업으로 1~2개소씩 실행함. 예를 들어 신노년 커뮤니티센터 1곳, 노인놀이터 1곳을 시범 운영하고, 시니어 봉사단도 일부 동(洞)에서 파일럿으로 시작할 수 있음. 시범사업에는 기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편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부족시 서울시나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함
- 성과관리 및 홍보: 모니터링·평가 체계 도입
 - 모든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검증이 필요함. TF에서 분기별로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이용자 피드백을 수렴하여 개선에 반영함

- 동시에 우수사례 홍보와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하여 지역 언론, 구청 SNS,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고령자 사회참여의 긍정적 효과와 프로그램 혜택을 알려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

나. 중장기 발전 방향

○ 고령친화 프로그램의 확대와 제도화

- 단기 성과를 바탕으로 권역별 거점(복합 여가·돌봄공간)을 확충하고, 공원·복지관 중심의 생활권 프로그램을 구 전역으로 확대함
- 「서대문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가칭)」를 제정하여, 고령친화 사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분야별 실행계획(여가·건강·돌봄·디지털포용 등)을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음
- 모든 수행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매뉴얼과 품질 기준을 마련해 서비스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높임

○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 구청, 복지관, 시니어클럽, 기업, 대학,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서대문 고령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민·관 협력 체계를 정례화해야함
- 대학과 문화기관은 평생교육·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업은 ESG·CSR 사업을 통해 후원·협력함
- 이러한 거버넌스는 정책 주체를 행정 중심에서 지역사회 전체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지속가능한 재정·인력 기반 조성

- 중앙정부 공모사업, 구 자체 예산, 민간 후원을 결합한 복합재원 구조를 구축해야함
-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서대문 시니어 펀드’를 조성하여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
- 시니어 전문복지사, 여가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을 양성해 프로그램의 품질을 높이고 지역 내 인적자원 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음

○ 고령친화도시 완성과 확산

- 중장기적으로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추진하고, 무장애 보행 환경·공공시설 개선 등 도시 인프라를 정비해야 함
- 서대문구의 성공모델을 인접 자치구와 공유하고, 정기적인 고령친화정책 포럼 및 박람회를 통해 성과를 확산시킴
-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 전 세대가 함께 행복한 도시”라는 브랜드를 확립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다. 결론

- 서대문구가 제안된 정책들을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간다면, 현재의 한계를 넘어 미래지향적 고령친화도시로의 체계적 전환이 가능할 것임. 이는 단순한 노인 복지의 확충을 넘어,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혁신적 프로그램과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는 서대문구가 선도적으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실천적 해법으로 기능할 것이며, 향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벤치마킹 기준이자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매김할 것임
- 결국, 서대문구가 지향하는 고령친화도시는 노인이 ‘보호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의 주체이자 자산으로 참여하는 도시로,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포용적 공동체의 표준 모델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함

〈참고 문헌〉

- ☐ 강신원, 노인 계층의 디지털 소외와 포용 - 주요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2023년
- ☐ 강은나·류병주, 미국의 고령자 자원봉사 프로그램 현황과 시사점, 『국제사회 보장리뷰』, 2023년 가을호, 통권 26호, 2023년
-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 국가정책정보포털 NSP, 노년기 자기실현과 정책과제, 2023년
- ☐ 국토교통부, 소규모 취약시설 무상 안전점검, 60곳 지자체의 경로당을 중심으로 본격 시작, 2023년
- ☐ 더 가디언, Over-70s only! Manchester opens playground for oldies, 2008년
- ☐ 동아일보, 하하센터에서 행복하게 나이듭니다, 2023년
-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2023년
-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 서대문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취약 어르신 예방 돌봄 강화
http://www.sdminews.co.kr/front/news/view.do?articleId=ARTICLE_00021836
- ☐ 서대문구 경로당 현황, 2025년
- ☐ 서대문구 노인관련사업 현황, 2025년
- ☐ 서대문구 노인관련시설 현황, 2025년
- ☐ 서대문구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 2024년
- ☐ 서울연구원, 시니어 간 여가 격차 해소 방안: 여가 역량 관점, 2023년
- ☐ 서울연구원, 초고령사회 대비한 서울시 노인문화정책 활성화 방안, 2023년
- ☐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통계, 2025년
-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안
- ☐ 세계보건기구(WHO),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2007년
- ☐ 신지영, 노인의 여가활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2022년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 노인의 삶과 인식 변화 -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2021년
- ☐ 허성호, 디지털 격차가 노인의 디지털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20년
- ☐ 행정안전부, 고령인구비율(시도/시/군/구)
- ☐ PMC,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a global perspective 2021년